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 의정부

回龍文化

2003년 통권 제16호



의정부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전경


포천
삼성홈프러스
삼성레미안
동두천
경기제2청사
송산주공9단지
송산주공1단지
백병원
의정부문화원
롯데마트
민락동
용현산업공단
신곡고가차도
영석고
←의정부역
용현주공
306보충대
↓동부간선도로
상계동
만가대사거리
퇴계원→

회룡문화 2003년 통권 제16호

차례 Contents

2003년 통권 제16호 • 발행처 : 의정부문화원 (031) 872-5678, 853-0400, 828-4736 / FAX. 853-0433 • 편집 및 디자인 : 디자인 동심원 (031) 845-3795

신임 문화원장 인사말 / 김태훈 원장	4
발간축사 / 국회의원 홍문종	6
의정부시장 김문원	7
의정부시의회 의장 허 환	8
통영 · 남해지역 향토문화유적 답사기 / 최영희	9
서계 박세당 선생 8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 학술대회 및 고문서 지상전시회 / 홍정덕	19
이동도서관에서 일하면서… / 진희경	32
'의정부찌개'에 대한 小考 / 최영희	34
옛 지도에서 본 의정부 / 김추윤	37
2003 회룡문화제 지상 소개 / e-아름다운세상 팀	65
「소강한약방」이야기 / 최영희	76
문화예술단체 탐방 '황석자 국악지부장' / 안희정	80
의정부문화원 연혁	88
문화원소식	92













표지 : 규장각 소장 양주목지도



「선현의 얼」을 널리 알려 「의정부의 얼」로 승화시키는데 진력할 터…

문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임 문화원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문화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허환 시의회 의장님께, 문화원가족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소 저를 아끼고 조언을 해주신 지역의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의정부·양

주지역 교육동지와 여러 선후배와 동료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은공에 힘입어 문화원장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승 ·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정부문화원이 새 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원은 제 2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원장직을 수행함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함으로써,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의정부 가꾸기」와 「문화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 의정부는 조선시대부터 역사적인 유래와 선현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정부문화원은 14년의 세월을 지역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성심껏 일해 왔습니다.

더욱이 의정부의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의정부 문화 창조를 위한 작업에 많은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엿보면서,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에 긍지를 갖게 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향토문화가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내 고장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주민들이 동참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이를 위해 「찾아오는 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으로 거듭나 의정부시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은 앞으로,

▲ 첫째, 「토요마당」을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 보다 알차게 운영할 것이며,

▲ 둘째, 우리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꽃피우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청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를 찾아 보는 「의정부 역사여행 」이라는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 셋째, 「의정부의 얼」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송산사」의 내력에서 「충절」을 배우고, 서계 박세당 선생의 유업에서「선비정신」과 「애민충정」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의공 정문부 장군의 「충절과 호국의지」를 되새겨 「의정부의 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내고장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의정부시민에게 접목시킴으로써 내고장 의정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뜨거운 열정을 모아 문화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문화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0월 7일

의정부 문화원장 **김 태 훈**



조화로운 문화발전을 위해 큰 버팀목이 되기를…



'회룡문화' 제1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문화도시입니다.

그동안 의정부문화원에서 발간된 '회룡문화'는 의정부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모습을 재현해 내고,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인해 의정부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회룡문화'를 발간하는 의정부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지역문화 발전에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은 타 문화원의 모범이 되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계승 없이는 문화발전의 현대와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현대와 조화를 이룬 전통문화의 개발 없이는 풍요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문화적 빈곤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의정부문화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부 시민에게 전통문화의 소개와 보급,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문화가 한층 성숙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의정부문화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회룡문화'가 의정부의 조화로운 문화발전을 위해 크나 큰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홍 문 종**(한나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발전을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지역문화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온 '회룡문화' 소식지 제1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 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오신 김태훈 원장님 이하 의정부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성숙도는 각 나라의 정책 수립에 있어 척도가 되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에 희망, 상상력, 창조력을 부여하는 문화적 가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해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주변국가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수천년에 걸쳐 내려온 중국문화의 저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6년째 발간되는 '회룡문화' 소식지는 그간 우리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와 지역문화 소개 등 다양한 문화정보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학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배포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소식 전달을 통하여 우리지역 문화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시민의견이 형성되어 의정부 문화발전을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룡문화'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의정부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장 **김 문 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는 문예지가 되기를…



의정부지역의 종합문예지인 회룡문화지 제1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애써오신 의정부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더욱 분출되어 가는 시점에서 전문인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예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은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발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홀히 다룬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룡문화제 때 보여 주었던 시민의 성숙된 문화의식과 열망은 어느 해 보다도 높고 진지 하였으며, 서계 박세당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 등을 거행하여 우리 지방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르는 수레바퀴도 탄력을 받으면 가속과 관성이 생기듯이 우리 의정부문화원도 16년 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키워나간다면 경기북부 최고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회룡문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좋은 문예지로 길이 이어지면서 전 시민이 애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회룡문화지 발간을 축하드리고,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허 환**



통영 · 남해 답사기행

최영희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의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 -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인 통영시는 산수풍광이 빼어나고 기후도 좋아 예로부터 축복받은 고장으로 두루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한산대첩과 당포승첩, 원문전첩을 이룩한 구국의 성지로서 세계 제일의 청정해역을 낀 한국수산의 간판도시, 예술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 계획에 따라 영·호남의 남해안을 잇는 개발의 중추기지로 급부상, 21세기의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고자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 희망찬 고장입니다.

〈통영시장〉









이 글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14일 까지 2박3일간 문화원임직원과 문화가족들이 통영지역과 남해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한 후 함께 여행하지 못한 문화가족들을 위하여 그림과 함께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통영시(예전에는 충무시)는 한반도의 남쪽 중심부 고성반도의 끝에 위치한 곳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바다는 15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중소도시로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의 고향이기도 하다.

6월 12일 오전 8시 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미끌어지듯 문화원을 출발한 버스는 구리 인터체인지를 지나 어느새 고속도로를 달려 함양휴게소에 도착했다. 이번 답사지역은 통영 · 남해지역이라니 가슴이 설레인다. 비로 인한 불편함 쯤은 감수하고 나름대로 운치 있는 우중여행이 될 것 같다. 한참을 버스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차창너머 안개 자욱한 산자락이 신비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이윽고 간간히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비릿한 바다냄새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통영인가 싶다.

알고 있다시피 통영시(예전에는 충무시)는 한반도의 남쪽 중심부 고성반도의 끝에 위치한 곳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바다는 15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중소도시로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의 고향이기도 하다.

오후 2시경 도착한 통영시내 식당 〈향토집〉의 점심메뉴는 굴밥이다. 그래선지 식당전체가 굴 냄새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잠깐 굴에 대한 정보를 말하자면,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우수한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육지의 완전식품'인 우유처럼 영양분을 균형있게 함유한 '바다의 완전식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굴은 조직이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므로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 노약자에게도 좋은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R'자가 붙지 않는 달은 굴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버틀러의 식사지침(Butler's Diet's Dry Dinner, 1599)에 보면 영어로 'R'자가 붙지 않는 달(5월에서 8월까지)의 굴은 경원시 한다고 한다. 이 시기 산란기를 전후로 비만도와 맛이 떨어지고 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굴의 시즌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그 중에서도 겨울철의 굴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가장 좋다고 한다. 남해안 한려수도에서 생산되는 굴은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지역의 무공해식품으로 생산량의 60%이상이 미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까다로운 외국인들이 기호에 맞춰 양식기법과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굴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향토집〉 식당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통영문화원 식구들과 인사하고 난 후 일행은 통영답사를 위해 버스에 올랐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처음 들른 곳은 통영 기상대가 보이는 언덕 중간쯤 있는 청마문학관으로 향했다.

청마 류치환 시인의 문학관에는 청마의 생애, 청마의 작품세계, 청마의 발자취, 시(詩) 감상코너 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청마의 유품 1백여점과 각종 문헌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을 둘러보며 우리고장 의정부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유품과 문헌자료를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복원된 청마의 생가



청마 문학관


통영의 향토역사관

다음 행선지는 통영의 향토역사관이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통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조들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사진자료 9백여점을 시대별로 전시하여 선대의 얼을 배우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영의 향토역사사료관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경상·전라·충청의 3도 수군(水軍)의 본영이었던 통제영(統制營)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0일 총 1만2천여 평이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존하는 세병관을 답사했다. 이곳은 세병관을 비롯하여 운주당, 경무당, 내아(內衙), 병고(兵庫), 백화당, 12공방, 중영(中營), 중영내아 등을 계속 복원하려는 곳인 여 당시 통제영의 위용을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청마 전시실에서 필자

「행복」

청마 유치환

-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인지도 모른다

-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통제영지 조감도〈사적 제402호〉



◀ 세병관

세병관〈국보 제 305호〉은 제 6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통제영을 한산도에서 이곳 두룡포로 옮겨온 1604년에 창건한 객사(客舍)로서, 통제영의 상징적 건물이다. 장대석 기단위에 정면 9칸, 측면 5칸의 단층팔작집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건물로서는 경복궁 내 경회루, 여수 진남관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다. 세병관이라는 이름은 '만하세병(挽河洗兵,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씻다)'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통영문화원 옆길에 세워둔 버스를 타기 위해 일행은 천천히 시내 길을 걸어 올라가며 통영우체국 근처에 청마 류치환의 연인이었던 시조시인 이영도가 운영하던 가게가 있었다는 문화유산해설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흥미있게 전해 들었다.

좁은 언덕길을 넘어 버스는 충렬사(忠烈祠, 〈사적 제236호〉)로 향했다.

충렬사는 조선 선조39년(1606) 제 7대 통제사 이운룡(李雲龍)이 왕명으로 이충무공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 충렬사〈사적 제236〉

경내에는 이충무공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비롯하여 내삼문, 중문, 외삼문, 정문, 홍살문 등 다섯 개의 문이 있으며, 중문 안에는 향사(享祀) 때 제수를 준비하던 동재(東齋) · 서재(西齋)가 있고, 외삼문 안에는 사무를 관장하던 숭무당(崇武堂)과 인재를 양성하던 경충재(景忠齋)가 있고, 외삼문 좌우에는 충렬묘비를 비롯한 6동의 비각이, 외삼문 밖에는 1988년에 복원한 강한루(江漢樓)와 전시관이 있다.

일행이 다시 도착한 통영해저터널은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6개월에 걸쳐 만든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로 길이 483m, 너비5m, 높이 3.5m이다. 양쪽 바다를 막고 바다 밑을 파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것으로,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龍門達陽'은 '용문을 거쳐 산양(山陽)에 통한다'는 뜻이다. 이곳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시켜 만들었다는 터널로 방공호용이다.

석식 후 일행이 밤늦게 도착한 통영해양청소년단 숙소에서 피곤한 여장을 풀고 이동 중 시내 해산물시장에서 준비해둔 싱싱한 생선회와 소주로 여행의 들뜬 기분을 달랬다.

6월 13일 오전 8시 숙소 출발

이튿날 숙박지가 시내와는 동떨어진 한적한 어촌마을이라 아침 6시경 눈을 뜨고 숙소주변을 일행 몇이서 돌아봤다. 바로 앞이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곳이고 마을 뒤쪽으로 나지막한 산이 둘러쳐진 아주 아담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텃밭을 지나다가 어느 밭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더니 한 웅쿰 넘겨준 싱싱한 상추를 맛있게 먹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 아주머니의 인심에 새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숙소 바로 앞이 바닷가라 산책 겸 해변을 걷다가 멸치를 직접 잡아 쪄서 말리는 곳이 있어 구경하고 싱싱한 것을 건조한 것이라 조림용 멸치 한 상자를 샀다.

통영시내 도남식당에서 먹은 조식이 늦어서일까, 처음 맛보는 신선한 생멸치회도 맛있고, 아침에 어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서일까 고등어조림도 맛있다.

다시 일행은 식당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한산도행 유람선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여객선 터미널 앞 음악분수 휴게광장은 감미로운 음악과 형형색색의 레이저 영상이 어우러져 한껏 신명을 돋우는 휴식의 광장이다. 이곳에서는 여름날 밤 음악의 리듬 따라 율동을 달리하는 분수에다 통영의 역사와 문화가 수막스크린을 통해 연출되는 레이져쇼가 환상적이란다.

자판커피를 마시며 20여분을 기다린 후에야 드디어 유람선에 승선했다. 잔잔한 바다는 언제나 포근하게 모든 이를 끌어 안는 것 같다. 선장의 구수한 설명



▲ 충무교와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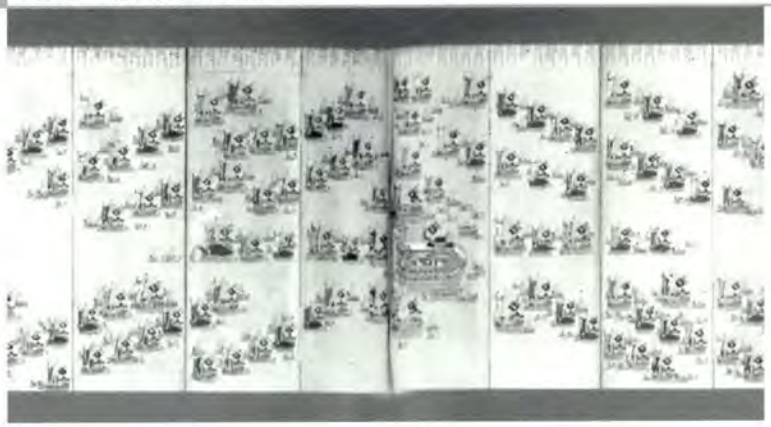


▲ 해저터널

여객선 터미널 앞 음악분수 휴게광장은 감미로운 음악과 형형색색의 레이저 영상이 어우러져 한껏 신명을 돋우는 휴식의 광장이다. 이곳에서는 여름날 밤 음악의 리듬 따라 율동을 달리하는 분수에다 통영의 역사와 문화가 수막스크린을 통해 연출되는 레이져쇼가 환상적이다.



을 들으며 주변을 돌아보니 곧 유람선은 한산도에 닿았다. 벌써 몇 십 년이나 지난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각인되어 떠오른다. 비교적 잘 정돈된 한산섬의 모습이 마냥 새롭다. 유람선에서 내린 일행은 깔끔하게 정돈



▲ 수조도 병풍 - 12폭 병풍에 548척(거북선 43척, 장졸 36,009명)의 크고 작은 배가 학익진을 펼치고 있는 장엄한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세계 해전사에서 반드시 소개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법(鶴翼陣法)이란 학의 양쪽 날개를 쫙 편 모양으로 일부러 후퇴하는척 하면서 얼마쯤 물러난 후에 적군이 승리한줄 착각하고 정신없이 따라붙으면 날개를 오므려서 그 안에 든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전술이다.

된 한산도에 어딘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바닷물이 휘돌아 나가는 여울목에는 전쟁 후 수많은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세계 해전사에서 반드시 소개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법(鶴翼陣法)이란 학의 양쪽 날개를 쫙 편 모양으로 일부러 후퇴하는척 하면서 얼마쯤 물러난 후에 적군이 승리한줄 착각하고 정신없이 따라붙으면 날개를 오므려서 그 안에든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전술이다.

정문을 들어서 오른쪽에 자리한 수루(戍樓)라는 현판의 망루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한산도 앞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벽에는 「한산섬」이란 시조가 나무액자로 걸려있어 소리 내어 한번 읽어본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지금은 조용하고 한산하기만한 이곳 앞바다가 전쟁터였다니 새삼스럽다.

안쪽에 있는 제승단 〈사적 제 113호〉은 1593년 8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받아 한산도에 본영을 설치했을 때 지금의 제승당 자리에 막료 장수들과 작전회의를 하던 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폐허가 되어버린 이곳에 제107대 통제사 조경(趙儆)이 1740년 유허비(遺墟碑)를 세우면서 운주당 옛터에 다시 집을 짓고 '제승당'이라 이름 하였으며, 지금 걸려있는 '制勝堂' 현판은 그가 쓴 글씨이다.



▲ 제승당



▲ 충무사



▲ 이순신 장군 영정

1976년 지금의 제승당과 충무사, 한산정, 수루 등을 새로 짓고 경내를 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무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1932년 제승당을 중수할 때 통영시민의 성금으로 목조 건물을 지어 이충무공의 영정(李象範 畵)을 봉안하고 '충무영당(忠武影堂)'이라

하였다. 1976년 제승당 일원을 성역화할 때 다시 지어 충무사라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충무사에 봉안되어 있는 영정은 정형모의 작품이다.

그 밖에 통영에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 윤이상 통영국제음악제

고향으로 선생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통영이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세계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대승첩인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통영시 일원에서 열리는 종합문화축제인 '한산대첩기념제'가 열린다. 군점(軍點)을 비롯해 풍어제, 승전무, 통영오광대, 마당놀이와 미술, 음악, 한글시백일장 등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특별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다.



◀ 한산대첩축제



◀ 세병관





통영을 떠나기 전 일행은 양식진주박물관에 들러서 우리나라 양식진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통영 문화원팀들과 헤어지고, 유엔군 참전기념 공원에서 통영의 명물인 '충무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후 남해로 향했다.

버스 유리창밖으로 보이는 사천시를 뒤로하면서 우리네 농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인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고 하는 바로 그 삼천포항구를 바라보면서 모두들 와락 웃음꽃을 피웠다.

긴 다리가 끝나는 곳에 남해시 문화원측에서 우리 일행의 안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새롭게 놓여진 이 다리 이름이 창선과 삼천포 간을 이은 '창선삼천포연륙교'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그냥 그렇게 길게 부른단다. 요즘은 지방자치제 시대라 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씁쓸한 표정이다.

쭉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서 바라보니 해안에 대나무로 만들어 해안가 바다 속에 설치해 둔 것이 보인다. 재래식 고기잡이 도구라 한다. 일행은 남해의 유명한 상주해수욕장을 한번 둘러보고 시간이 어중간해 서둘러 버스에 오른 후 예정에 없던 남해 용문사 답사를 하기로 했다.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입구

세계해전사상 유례가 없는 대승첩인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통영시 일원에서 열리는 종합문화축제인 '한산대첩기념제'가 열린다. 군점(軍點)을 비롯해 풍어제, 승전무, 통영오광대, 마당놀이와 미술, 음악, 한글시백일장 등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특별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다.



▲ 용문사 일주문

가 비좁은 것 같다. 운동 삼아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오래된 사찰이다.

오후 6시 반경에 오늘의 숙박 장소인 남해 청소년수련원에 도착했다.

아담한 시골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단체급식 시스템이라 죽 줄지어 식판으로 식사를 한다.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저녁 식사 후 한편에 마련된 집단 욕실도 그런대로 쓸만하다. 부근에 해안이 자갈밭인 해수욕장도 있고 언덕너머에는 남해시에서 운영하는 전원주택 같은 방갈로도 임대할 수 있단다. 사전에 예약해야 만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어제저녁 다른 팀이 마늘 한 자루씩 사온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은 방 식구들과 아침 일찍 마늘 사러 인근 농가로 가기위해 논둑길을 따라 나갔다. 어찌어찌 설득해서 말린 마늘잎을 따서 망자루에 담고 저울에 달아서 사긴 샀는데 이게 욕심이지 싶다. 무거운 자루를 운반해야 하고 그렇게 싼 편도 아니다. 그러나 직접 생산지에서 구입한다는데 의미를 두기로 하고 마늘 자루를 숙소로 옮겨놓고 바닷가 산책을 나섰다.

숙소에서 5, 6분 정도 걸어서 닿는 곳에 모래사장이 아닌 자갈밭 해안이 있다. 소나무 방풍림도 있고 분위기도 좋다. 바닷바람을 피부로 느끼면서 허리를 굽혀 납작한 돌을 찾는 자신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은 필자가 내세울만한 살림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6월14일 오전 8시 반

청소년수련원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일행은 이번 답사 마지막 코스인 남해 보리암을 답사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 숙소와 가까운 곳인 남해 가천해안마을 이장인 김성옥 씨의 안내로 다랭이 마을을 둘러보게 되었다. '다랭이'란 비탈진 곳에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을 뜻하는 이 마을의 별칭으로, 바다에 잇닿은 설흘산(488m)자락 급경사를 깍아 만든 '계단논'이 1백여층이나 되고 수로(水路)가 없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천수답 뿐이다. 다랭이마을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다. 60여가구에 주민 1백50명이 사는 다랭이마을의 주업은 마늘과 쌀농사다. 바다를 면하고 있지만 갯바위 때문에 연안에 배를 대기 어렵고 태풍이 수시로 몰아쳐 고기잡이는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또한 동네에는 남근과 비스듬히 누운 임산부를 닮았다는 암수바위 한쌍이 눈길을 끈다. 예전부터 쭉 마을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미륵불로 여겨 섬긴다고 한다.


▲ 다랭이 마을 암수바위

특산물






통영 연해에는 사철 영양류(營養流)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바다 남쪽으로 동해난류가 흘러 어족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한국 수산자원의 보고'라 불리어진다. 세계에서 깨끗한 바다로 손꼽히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맛과 품질에서 단연 으뜸이다. 특히 굴, 멸치, 붕장어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오전 10시경 관음성지(觀音聖地)중의 하나인 남해 금산 보리암 답사를 위해 산중턱 주차장에서 대형버스를 내리고 보리암행 전용버스로 갈아타고 보리암을 향해 올라갔다. 예전에는 한참을 걸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참 편리하기도 하다. 그러는 한편 산속의 자연환경 오염이 그만큼 더해져갈 것이다. 나머지 십여분을 걷는데 쉽지 않은 것을 보면 확실히 운동부족이다. 간신히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고 해서 도착한 보리암은 사람으로 만원이다.

여기에서 관음기도 효험이 있기로 소문난 세 곳의 관음상주도량을 소개한다. 서해안으로는 강화지역 석모도 '보문사'가 그 곳이요, 동해안으로는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가 관음상주도량이요, 남해안으로는 이곳 남해의 '보리암'이 바로 그 관음상주도량인 것이다. 이들 세 곳 모두 바닷가 인근에 있는 수도처로 많은 신도들이 나름대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관음상주도량을 찾는다.


▲ 보리암 해수관음입상

관음보살은 관세음(觀世音), 또는 관자재(觀自在)보살을 말한다.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관음보살을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곧바로 그 음성을 관(觀)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현세이익 신앙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법화경」'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구체적으로 불에 타거나 물에 빠졌을 때, 싸움터의 위험이나 도적을 만났을 때, 범죄에 의한 구속이나 배를 타고가다 바다에 빠졌을 때와 같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아들 · 딸을 낳게 해 달라는 바람에 까지 관세음

관음보살은 관세음(觀世音), 또는 관자재(觀自在)보살을 말한다.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관음보살을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곧바로 그 음성을 관(觀)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현세이익 신앙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 통영 · 남해 답사단 일행 기념사진

보살을 부르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날마다 부딪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범부에게 관음보살은 크나큰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현실적 요구를 보상받기 위한 방편으로 관음신앙이 현대인들에게 있어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화엄경」'입법계품'에서는 관음이 보다 실재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선재동자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찾아 구도행각을 벌이는 중에 관음이 스물여덟번째 선지식으로 나타난다. 즉 관음이 남쪽바다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살고 있으면서 법화경에서와 같이 중생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화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샘물이 굽이쳐 둘리고 울창한 숲에 향기로운 풀이 부드럽게 나 있는 보타락가산의 서쪽 바윗골에서 관음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는 화엄경의 이 내용은, 많은 관음 신앙인들에게 마치 이 현실세계의 어느 곳에 바로 그런 관음이 머물고 있는 땅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면에 서 있는 거대한 해수관음이 시원한 바다를 품안에 거두어 수많은 순례자들의 소망을 받아 주기에 충분하다. 툭 터진 전망과 이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남해 '보리암'의 상징으로 되어버린 해수관음상에 참배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탁트인 망망한 바다가 한결 이곳 분위기와 어울린다.

답사를 마친 후 점심을 먹으러 시내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오후 2시30분 경 남해를 뒤로하고 의정부를 향한 버스에 몸을 의지하고 돌아보니 2박3일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간다. 일행을 태운 버스가 한강을 건너서 구리지역을 지날 때는 세찬 비바람이 차창을 때리고 있다.

8시30분경 문화원 정문에 도착할 즈음에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마늘보따리를 낑낑대며 챙기면서 다시 한번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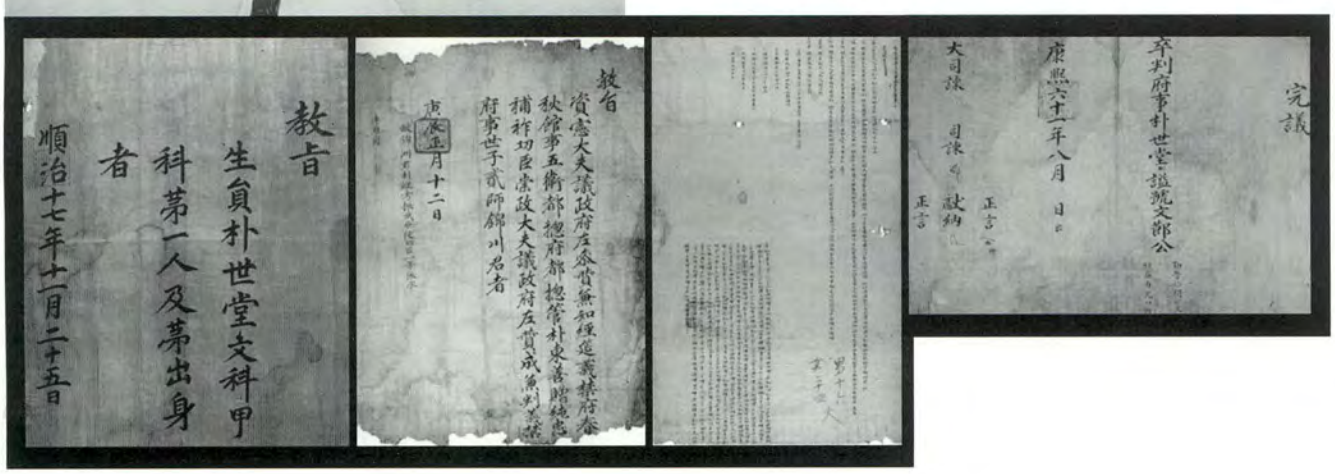
서계 박세당 선생
8월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
학술대회 및 고문서 지상전시회

홍정덕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의정부문화원은 2003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서계 박세당 선생을 기념하는 대규모의 현창 행사를 의정부시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추모대제와 유품 및 종가 고문서 전시회, 그리고 기념 학술대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군사문화의 도시로만 알려져 온 우리 시의 오래된 문화 유산을 대외에 과시하고 시의 문화적 품격을 제고한 뜻깊은 행사였으며, 아울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알차고 보람있는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좋은 행사였다.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향토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고, 서계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재조명해 보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시의 〈서계 박세당〉 선생이 2003년의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선조 후기 인조~숙종 연간 격동의 한 시대를 살면서 학문, 사상의 길에 타협하지 않는 선비의 옹골진 삶을 살아 간 서계 선생의 자취는 선생이 겪은 정치적 환경의 불우로 말미암아 뒤안길로 잊혀져 갔지만 시대와 세대의 교체와 변화를 겪으며 오늘 마침내 온 학계가 주목하는 개혁사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와중에 2003년은 마침 선생의 서거 3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선생 서거일이 들어 있는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이다.

선생의 서거일은 음력 8월 21일이지만 이를 양력으로 대치하여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생을 현창하는 사업이 기획되었고, 문화원은 여러 유관기관과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협의 끝에 행사를 〈300주기 추모대제〉, 〈서계종가 고문서 전시회〉, 〈서계 기념 학술대회〉, 〈예술제〉의 네부분으로 확정하였으나, 결국 〈예술제〉는 여러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취소되고 말았다.

고관 대작의 귀예(貴譽)를 누렸으나
당대의 삶으로 그쳤을 뿐
오히려 사후에 포폄의 대상에 그치는
숱한 사람들에 비하여
선생은 환로(宦路)에 있음에
바름 앞에 당당하셨고,
환로에서 물러남에 35년 긴 세월을
산림(山林)에 청정(淸淨)하셨던
민족의 스승이셨다.

서계선생 서거 300주년 기념 추모대제

선생의 영령을 추모하고 삶의 궤적을 기리는 〈서계선생 서거 300주년 기념 추모대제〉가 선생의 서거일인 8월 21일 장암동 서계 묘역에서 반남 박씨 서계 종중과,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원 및 의정부 양주의 유림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고 의미 깊게 진행되었다. 의정부시 김문원 시장을 초헌관으로 유림과 종중이 헌관으로 상전(上奠)한 이번 추모대제는 역사의 갈피 안에 묻혀져 버린 과거의 한 시대인이 아닌 그 사상과 학문적 성과가 오늘의 우리 삶에 지표로 작용하는 현재인을 존경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고관 대작의 귀예(貴譽)를 누렸으나 당대의 삶으로 그쳤을 뿐 오히려 사후에 포폄의 대상에 그치는 숱한 사람들에 비하여 선생은 환로(宦路)에 있음에 바름 앞에 당당하셨고, 환로에서 물러남에 35년 긴 세월을 산림(山林)에 청정(淸淨)하셨던 민족의 스승이셨다.

삶의 거친 환경과 고독한 야인(野人)의 길에서 일관된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홀로 탁마(琢磨)해 낸 독창적인 사고(思考)는 한 때 세상의 홀대 속에 심지어는

〈이단(異端)〉으로 몰리며 〈사문난적(斯文亂賊)〉, 〈모성훼경(侮聖毁經)〉의 극단적인 공격을 받아내야 했으나 선생이 견지하셨던 〈바른 진리〉에의 양보 없는 집착은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시대를 앞서나간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명(幽明)을 달리하신 지 어언 3백년, 묘소는 적막하고 변하는 계절만이 표정을 달리 한 채 흐르고 흐르는 데 후손들과 후배들이 모여 피워 올리는 추모의 선향(線香)이 지금은 비록 가늘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의 자취는 더 크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이 3백주년 추모 제향(祭享)이 선생의 업적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한 계기가 되어 더 풍성한 학문의 열매로 결실될 그 날을 향한 밑거름이 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서계종가 고문서 전시회

선생의 유묵(遺墨)과 유품, 그리고 종가에 전해지는 고문서들은 2002년 보다 안





전한 관리와 진전된 연구를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위탁(委託)되었다. 의정부의 문화적 재보(財寶)가 시의 경계(境界)를 떠난 것은 자못 섭섭한 일이지만 현재의 관리 형편으로 볼 때 한편 부득이하고도 다행한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고문서의 관리를 위탁받은 정신문화연구원은 2002년 서계 종가의 고문서 중 진품(珍品)을 골라 이를 전시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던 적이 있고, 당시 이를 참관한 의정부문화원 관계자들은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한번 진행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졌었다. 워낙 깊고 큰 선생의 학문 세계이지만 그 사상의 일단이나마 선생의 유묵과 종가의 고문서를 접하여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때 마침 선생의 3백 주기를 당하여 의정부시와 문화관광부가 일정한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정신문화연구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해 마련된 전시회 도록(圖錄) 수록 작품에 40여 점을 더하여 확장된 도록을 편찬하기로 하고 서계 종중 위탁 고문서 중에서 선생의 면모(面貌)를 잘 전할 수 있는 문서들을 선정하여 전시하기

로 합의가 되었다.

전시 공간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정부예술의 전당 전시실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협의 과정에서 전시일은 애초의 8월 21일에서 약간 늦추어져 29~31일로 확정되었다.

전시 시작일인 8월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예술의 전당 전시실에는 종손(宗孫) 박찬호 선생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반남 박씨 종중회원들과 홍문종 국회의원, 김문원 시장, 김태훈 의정부 문화원장 등 여러 내빈, 그리고 시의 관계 공무원들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여 개막 테이프를 끊고 사흘 간의 고문서 전시회에 들어갔다.

이날 문화원 원용목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김문원 시장은 우리 시의 커다란 문화 자산(資産)인 서계 선생님의 업적을 아주 간략하게 나마 학창시절에 공부한 기억이 난다며 이와 같은 훌륭한 분의 업적을 눈으로 보며 접하게 된 이번 전시회를 필두(筆頭)로 의정부의 향토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자고 하였고, 홍문종 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문화의 발전만이 진정한 사회의 진보라는 전제 아래 서계 선생과 같은 분의 삶이 우리 의정부 시민 모두가 지향해야 할 지표라는 것과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의정부를 보다 발전된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부탁하였다.

이어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 모두는 홍정덕 향토문화연구소장의 안내로 전시된 고문서를 둘러보았다.

이번에 전시된 고문서 중에서 중요한 몇몇을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계 선생 초상화



조선 후기 초상화의
명품으로 꼽힐 만한 이 그림은
견본(絹本)에 채색한 족자형으로서
140×78㎝의 규모이다.
선생의 정면 반신상을 그렸는데
조선 초상화 제작 기법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극세밀화로서
선생의 진면목이 확연히
드러나는 명품이다.

종가에 전해진 서계의 초상화 4점 중에 온존하는 2점 중에 하나인 이 초상화는 서계 선생의 포의(布衣) 진상(眞相)을 그린 것으로 작자는 조선 후기의 대화가 조세걸(曺世傑)로 추정되며 작화(作畵)의 시기는 1690년으로 선생의 나이 62세 경이다.

이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둘째 아들 박태보의 역할이 컸던 것을 그의 문집인 〈정재집(定齋集)〉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일찍이 조세걸에게 아버지 서계의 진영(眞影) 제작을 부탁했던 정재는 그 일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두었었던지 정치적 사안(事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도 운명하기 바로 전날 자신을 문병 차 찾아온 평산부사 유득일에게 아버지의 진영 제작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조세걸은 서계의 은거지인 장암동 석천 계곡에 찾아와 계곡의 모습을 6폭의 병풍화로 그린 적이 있는데, 그 풍경화에 남긴 서계의 화제(畵題)가 남아 전하고 있다. 이 화제의 말미에 조세걸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사실을 서계 스스로가 전하고 있다.

조세걸이 금년에 서계에 들러, 내가 훌륭한 선비인 줄 알고 형상을 그려주고는 (공력을 들여야 할) 묘처에는 마음과 기교를 다 하였다고 말했다. 이로서 조세걸이 그린 이 초상화에는 결국 아들 정재 박태보의 지극한 효성이 깃들여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 초상화의 명품으로 꼽힐 만한 이 그림은 견본(絹本)에 채색한 족자형으로서 140×78㎝의 규모이다. 선생의 정면 반신상을 그렸는데 조선 초상화 제작 기법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극세밀화로서 선생의 진면목이 확연히 드러나는 명품이다.

2) 박정 초상화

서계 선생의 부친인 〈금주군 박정(錦州君 朴炡)〉의 초상화이다. 화가는 미상이고, 제작 연도는 1625년 경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이 맞는다면 초상화 제작 당시 박정 선생의 나이는 약관 30세였다. 이 초상화는 인조반정에 주도세력으로 참가한 박정이 반정 성공 후 공훈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은전(恩典)의 일부였다. 공신으로 책훈(策勳)되면 진급(進級), 진봉(進封)은 물론 가족에까지 적용되는 면책 특권과 함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사패(賜牌)지로 받았고, 나아가 공신의 초상을 그려 공신각에 봉안하였다. 이 초상화는 당시 공신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전을 반영한 은전 가운데 하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 초상화

이 초상화는 공훈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은전(恩典)의 일부였다. 공신으로 책훈(策勳)되면 진급(進級), 진봉(進封)은 물론 가족에까지 적용되는 면책 특권과 함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사패(賜牌)지로 받았고, 나아가 공신의 초상을 그려 공신각에 봉안하였다.

단 이 초상화가 최초 제작 당시의 초상화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초의 초상화를 모사하여 종중(宗中)의 여러 집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공신 포상 당시에 제작된 최초의 초상화라면 당연히 박정의 장자 세규의 후손가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세규 - 박태소 - 박필사 - 박사창 - 박호원 - 박상로로 이어지는 종손 불천위가는 1777년 박상로가 역모에 연루되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에 가문이 온존하였던 서계종택에 위탁되었다고 한다. 다시 소개할 박동선, 박정 관련 유물이 이 때

위탁된 문건들이다.

초상화는 관복차림으로 교의에 걸터앉은 모습을 그린 전신상으로 옷 주름 등 관복에 대한 묘사가 간략화 된 반면 상호(相好)의 묘사는 특징과 세부를 함께 세밀히 묘사해 낸 명품이다.

서계 종택의 다른 고문서와 함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다.


敎旨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經筵義禁府春
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扶東善贈純忠
補祚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
府事世子貳師錦川君者
庚辰 月十二日

박동선 봉군 교서

3) 박동선 봉군 교서

박동선을 〈금천군(錦川君)〉에 봉군(封君)하는 교서(敎書)로서 1640년 그가 사망하던 해에 아들 박정의 공신 훈책에 의거하여 봉군이 이루어진다.

금천군 박동선은 서계의 조부로서 금주군 박정의 부친이 되는 바, 일찍이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검열(檢閱), 설서(設書), 정언(正言), 대사간(大司諫), 이조참판, 형조판서를 거쳐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해조의 대북(大北) 정권이 수립되자 광진 별서(別墅)에 은거하였고, 이로서 정권의 미움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는 마침내 아들 박정이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이 박동선 대에 이르러 서계의 가문은 반남 박씨 대종(大宗)에서 분리되었고 독립적인 별도의 계파를 구성하였다.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과는 달리 장수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가입하는 등 내외로부터 崇品(숭품)으로 존경 받았다.

4) 박세당 시권

1660년 박세당이 별시 문과 전시에서 장원에 급제한 시권(試券), 즉 과거 시험 답안지이다. 과거 시험지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합격자에게는 본인에게 반환하였다. 현재 전하는 과거 답안지 중에 문과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 원본으로는 이

박세당 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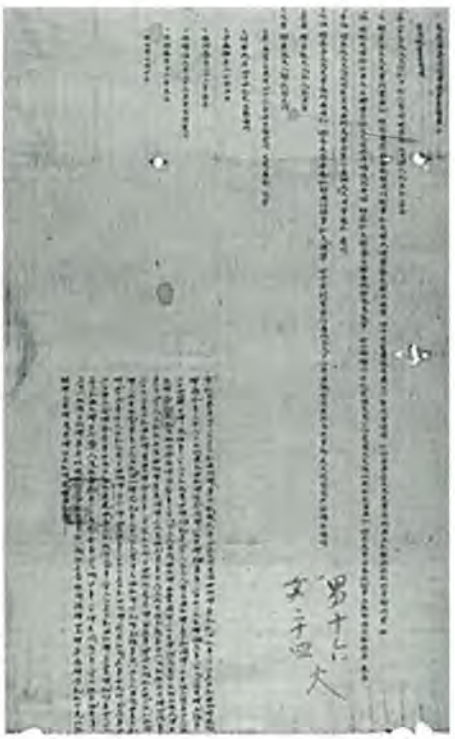


것이 유일한 예가 된다. 시권의 우측에는 수험번호 및 신원 사항, 그리고 시험문제가 기재되어 있는데, 시험문제는 〈당의 동평장사 양념이 천하의 재부를 좌장에 모을 것을 청함(唐同平章事楊炎請天下財賦盡歸左藏)〉에 대한 표문(表文)이다. 유려한 필체(筆體)에다 오(誤), 탈자(脫字)의 수정, 수험관의 검열 표시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사, 교육사 연구에 더없이 중요하다.

5) 박세당 호구(戶口) 단자(單子)

1702년 그러니까 서계의 말년 74세 당시의 서계의 가족 구성과 가계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문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을 위한 조사표라고 할 수 있다. 서계가 사세한 것이 1703년이니까 사세하기 1년 전 〈백헌신도비명〉 찬술과 관련한 탄핵의 회오리가 불어오기 바로 직전이다. 당시의 법제에 따르면 매 식년(3년) 마다 호주가 자신의 호구상황을 2통의 단자로 작성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는 내용상의 오류를 점검한 뒤 1통은 관에 비치하여 호적대장 작성용으로 참고하고 나머지 1통은 호주에게 반환하였다. 이 호구단자는 관에서 반급(反給)한 원본은 아니며 단자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草本)이지만 서계 종택에 남아있는 유일한 호구관계 문서이다. 이 초본에 따르면 호주 박세당의 관직은 〈숭정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이고 거주지는 〈양주 둔야면 장수원리 3통 수호(首號)〉로 되어있다.

가족상황은 호주 박세당 외에 첩실 이소사, 며느리 정씨, 아들 태한, 손자 필기, 손부 임씨, 미혼인 손자 필손, 손녀로 되어있고, 도망노예를 포함하여 남 16명, 여 24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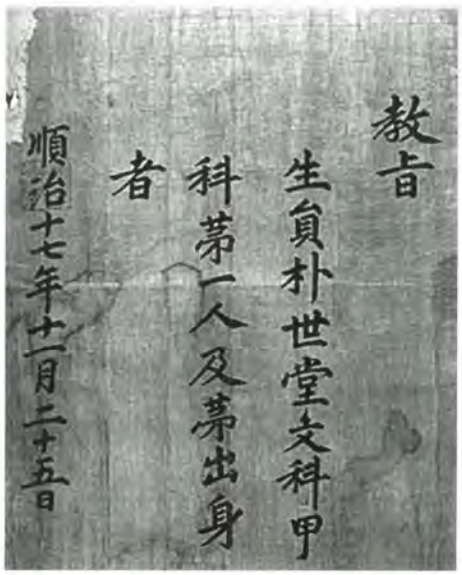
박세당 호구(戶口) 단자(單子)

당시의 법제에 따르면 매 식년(3년) 마다 호주가 자신의 호구상황을 2통의 단자로 작성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는 내용상의 오류를 점검한 뒤 1통은 관에 비치하여 호적대장 작성용으로 참고하고 나머지 1통은 호주에게 반환하였다. 이 호구단자는 관에서 반급(反給)한 원본은 아니며 단자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草本)이지만 서계 종택에 남아있는 유일한 호구관계 문서이다.

그의 집안 가계는 몹시 어려워 실록 여기저기에 그를 구휼(救恤)해야 한다는 소청(訴請)이 보이고, 아울러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라는 왕명이 내릴 정도였다.

이 호구 단자는 당시 의정부 호원동 지역의 사회,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좋은 사료가 된다.

박세당은 32세가 되던 1660년 생원시(生員試)에 2등 7인으로 입격하였고, 이어 2개월 후인 11월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서 영예의 장원(壯元)을 차지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문과 장원을 차지하면 5 품직을, 2등과 3등은 각각 6, 7 품직을 받고, 그 외에는 9 품직을 받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었던 바 9품에서 5품에 오르려면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장원에 대한 우대는 특별한 것이었다.



박세당 홍패(紅牌)

6) 박세당 홍패(紅牌)

홍패는 문 · 무과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로 붉은 장지(壯紙)를 사용하여 작성하였기에 홍패라는 명칭이 붙었다.

박세당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대부가에서 출생하였고, 할아버지 박동선과 아버지 박정이 모두 현관(顯官)으로 재직하는 가계의 배경을 지녔으나 부친 박정이 일찍 사세(辭世)하고 이어 호란(胡亂)을 맞이하여 학문에의 입문은 늦은 편이었다.

고모부 정사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본격적인 학업은 결혼 후 처숙(妻叔) 남이성, 처남(妻男) 남구만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상사(喪事)로 과거 응시도 늦어지다가 32세가 되던 1660년 생원시(生員試)에 2등 7인으로 입격하였고, 이어 2개월 후인 11월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서 영예의 장원(壯元)을 차지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문과 장원을 차지하면 5 품직을, 2등과 3등은 각각 6, 7 품직을 받고, 그 외에는 9 품직을 받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었던 바 9품에서 5품에 오르려면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장원에 대한 우대는 특별한 것이었다.

한편, 박세당의 뒤를 이어 장자 태유와 차자 태보 역시 문과에 합격하였고, 특히 차자 태보는 1677년 (숙종3) 문과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아버지 박세당과 함께 부자 장원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7) 박세당 시호(諡號)서경(署經)완의(完議)

이번 전시회의 도록에는 박세당의 〈시호서경완의〉가 모두 4점 실려있다.

시호(諡號)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름이다. 따라서 시호는 복잡하고 세밀한 검증과 협의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시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집안에서 본인의 평생을 기록한 시장을 지어 예조(禮曹)에 올리고, 예조의 검토를 마친 후 봉


박세당 시호(諡號)서경(署經)완의(完議)

상시로 보내진다. 봉상시의 검토가 끝나면 이를 다시 홍문관(弘文館)에 이송하고 홍문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3망을 의정(議定)하게 된다. 이를 다시 홍문관의 동벽(東壁) 1원과 봉상시정 이하 제원이 재의정하여 의정부의 사인(舍人), 검상(檢詳) 중 1인이 서경하여 행장(行狀)을 아울러 본조에 보고하고 입격하여 왕의 재가를 받게 된다. 시호에 대한 서경은 이 재가가 있은 후 관계 관원들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이 서경 완의는 이 절차가 모두 마쳐졌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시호서경완의가 4점이나 되는 것은 박세당의 시호가 후일 다시 개시(改諡)되었기 때문이다. 박세당의 시호는 처음에 〈문절(文節)〉로 정해졌는데 이 시호의 시주는 〈勤學好聞(文), 好廉自克(節)〉이었다. 나중에 다시 이를 개정하여 〈文貞〉이라 하였고, 이의 시주는 〈勤學好聞(文), 淸白守節(貞)〉으로서 이 두 개의 시호는 모두 그의 평생에 걸치는 학문 탐구와 산림은거를 평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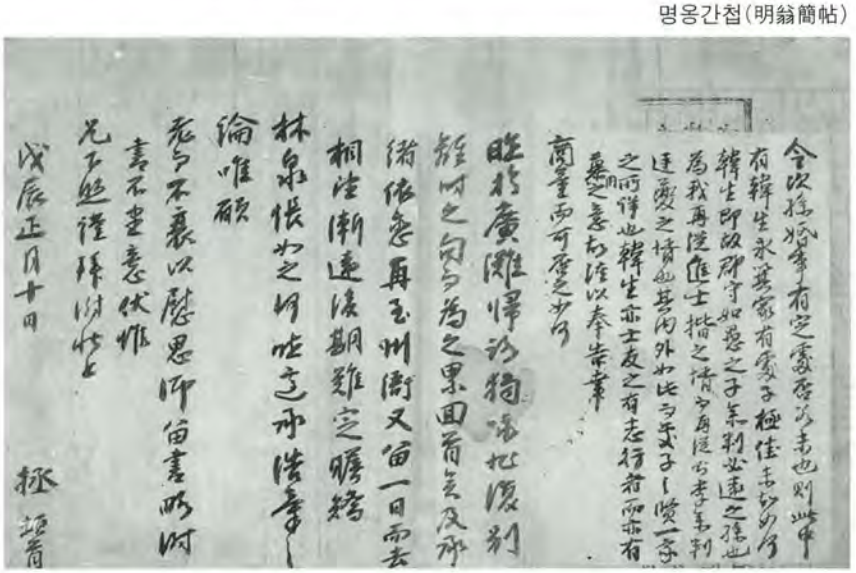
단 같은 글자라 하여도 시주에 따라 그 품격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文〉의 경우에 공자는 〈經天緯地〉였고, 이황, 이이, 김장생, 유성룡 등은 〈道德博學〉이었으니 아마도 관계 기관은 서계를 이들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로 공의(公議)를 모았던 것 같다. 우리로서는 적이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평가이다.

8) 명옹간첩(明翁簡帖)

명옹은 〈명재 윤증(明齋 尹拯)〉을 가리키는 바 이 문서는 서계에게 보낸 윤증의 편지를 모은 것이다.

명재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로 우암 송

명옹간첩(明翁簡帖)



윤증은 박세당의 형 박세후의 처남이었고, 후일 박세당의 차자 박태보가 이 형에게 출계(出系)되었으므로 박세당과 윤증은 실질적으로는 사돈관계가 된다. 아울러 둘 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우암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동지적 입장에서 친밀한 교류가 진행될 수밖에는 없었다.

시열과 더불어 그 유명한 회니논쟁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노론과 소론이 분열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다.

윤증은 박세당의 형 박세후의 처남이었고, 후일 박세당의 차자 박태보가 이 형에게 출계(出系)되었으므로 박세당과 윤증은 실질적으로는 사돈관계가 된다. 아울러 둘 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우암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동지적 입장에서 친밀한 교류가 진행될 수밖에는 없었다.

이 간첩에는 윤증이 박세당의 차손(次孫)의 혼사와 관련하여 규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조선시대 양반가의 혼례를 연구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9) 반남선생포증기사비(潘南先生褒贈紀事碑)



반남선생포증기사비(潘南先生褒贈紀事碑)

반남선생은 서계의 가조(家祖)인 〈반남 박상충(朴常衷)〉을 이른다.

송시열은 자신의 명분론을 정론(廷論)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말 친명정책을 주장하다가 유배 치사(致死)된 박상충에게 시호를 더하는 포증을 건의하여 관철시킨다. 이를 기념하여 박세채가 비문을 쓰고 서계의 장자 박태유가 글씨를 써서 세운 비석의 탁본이다. 이 비석을 세우면서 서계는 말미의 간기(刊記)로 사용된 만력(萬曆) 연호(年號)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박세채와 논쟁을 일으켜 자신의 실학적 관점을 확연히 피력하였고, 이는 우암과의 학문적, 사상적 차이와 함께 외교론의 관점 차이를 분명히 하는 사건이었다.

박세당 비석의 글씨는 조선 후기의 명필 〈백석 박태유(白石 朴泰維)〉의 여러 글씨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글씨로서 서계 집안에 전해지는 안진경체 글씨의 계보를 엿볼 수 있는 명품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비석의 글씨는 조선 후기의 명필 〈백석 박태유(白石 朴泰維)〉의 여러 글씨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글씨로서 서계 집안에 전해지는 안진경체 글씨의 계보를 엿볼 수 있는 명품이기도 하다.

2003년 8월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 학술대회

본 학술대회는 서계 선생의 서거 3백주년과 함께 선생이 2003년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의정부문화원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기도, 의정부시, 반남박씨 서계종중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운데 한국 사상, 철학계 및 사학계의 관

심이 집중된 가운데 2003년 8월 29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의정부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정신문화연구원 김학수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의 학술회의는 〈서계 박세당 사상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모두 5명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논지(論之)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논문을 발표한 고려대학교의 윤사순 교수는 이날 발표된 〈서계 박세당 유학의 철학적 특징〉 이라는 논문에서 서계의 학문을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학풍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서계의 정주학설에 대한 비판을 주요 이슈별로 개관하였다. 윤 박사는 서계의 학문을 실학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통념적 사고와 질서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와 현실대응이 결국은 실리적인 친청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내용과 성격의 경학을 통하여 유학의 자체혁신인 탈성리학적 사고를 이루었으며, 이는 뒷날 북학을 일으킬 텃밭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나아가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실학의 철학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박병련 교수는 〈박세당의 허문 비판과 정치적 행동의 특성〉 이라는 논문에서 서계의 학문적 사상적 교류자들을 개관하고 서계가 칭하는 교류 대상자, 즉 〈현자〉란 우암 송시열에게 ' 머리를 굽혀 굴종하지 않는 사람' 이었다고 정의한 후, 그들의 명단과 사상, 정치적 입장을 개괄하였다. 이어 서계 정치적 사유의 특징은 "실효 대 허문의 의미론적 대립" 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타자 준거적 대의론에 대한 비판"으로 보았다. 그는 서계는 정치적 생애를 일관하여 "자아 준거적 실효 사상"을 실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절의, 화의 논쟁〉, 〈반존양론〉, 〈김만균 배종거부 사건〉, 〈예송〉, 〈김육 묘 문제〉, 〈인현왕후 복위와 남인 축출 문제〉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서계를 허문 의식의 대표자 송시열과 맞선 서계의 생애를 송시열을 넘어 조선과 조선 민중을 발견하려는 자아 준거적 의식을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의 공존을 허락하고 국제질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 간 호걸스런 선비라고 평가하였다.

세번째는 〈박세당의 삶과 그 사상의 신의〉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권오영 교수가 발표하였다.

그는 서계의 가계와 생애를 개관하면서 그의 삶을 〈한인(閑人)〉으로 규정하였고, 남구만의 약천집을 인용하여 "이 형의 행동은 높은 곳은 너무 높고 낮은 곳은 너무 낮다. 비록 하나의 곧은 창자를 타고난 것이 이같이 좋으나 이른바 너무 지나친 곳은 비록 이 아우가 형과 친하고 형을 중하게 여기고, 형을 사랑하고, 형을 높이 생각하는



훈학집요(訓學輯要)

마음으로도 끝내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구절로 그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이어 경전 주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노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개괄하고, 서계가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성심과 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노장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성리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 하였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네번째 논문 〈박세당의 사단 칠정론과 인심도심설 취급 태도와 실천 문제〉는 청주교대의 김종수 선생이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서 논문 전체를 〈사단칠정론〉과 〈인심도심설〉, 그리고 〈양대 담론의 취급태도와 실천의 문제〉라는 세 주제로 대분하고 이 각각의 주제를 다시 소제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서계유묵(西溪遺墨)

그는 서계의 철학이 주자학의 교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사상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현실적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변혁 이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지적 저항 행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정의하고, 주자학 이후의 대안적 사유체계에 대한 심각한 지적 고뇌 과정을 경유한 경학적 산물로서 개인과 사회를 망라한 일정한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선도적으로 제창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계 철학이 은거라는 결정적인 삶의 환경에 의하여 일정하게 제약받고 있다면서 그의 철학이 토지제도, 신분제도 청의 새로운 문물 수용과 같은 적극적인 수준으로 유인되어 세부적 각론 단계로 정밀하게 발전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마지막 논문은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홍정덕 선생의 〈색경 저작 배경의 정치성〉이라는 논문으로 필자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색경〉을 제재로 하였으나, 그 논지는 서계 생애의 정치적 편향성을 검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서계의 생애와 교류, 친척 관계를 통하여 그의 학문적 배경에 〈반 우암〉이라는 모티브가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를 개괄하였다. 따라서 농서에 불과하지만 그의 다른 저서인 〈사변록〉이나 〈남화경주해산보〉 등과 마찬가지로 그의 저서 〈색경〉 역시 반 우암 모티브로 저작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농가직설〉과 〈산림경제〉를 〈색경〉과 비교하여 이 3권의 농서가 각각 소론, 노론의 당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세 농서가 서로 반대되는 당색의 농서 기사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다섯 편의 논문 발표가 끝난 후 국민대학교 정만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에 들어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순우 교수, 상지대학교 곽진 교수, 국사편찬위원회의 이영춘 편사연구관, 서울대학교규장각의 신병주 학예연구사와 발표자 사이의 열띠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의 반성

이번 서계 현창 행사는 서계 박세당 선생의 서거 3백주년과 8월의 문화인물 선정이라는 계기를 맞아 이루어진 의정부시 최초의 본격적인 학술 행사였다. 따라서 그만큼 의미도 컸고, 또 준비도 치밀하게 이루어져 모처럼 진지한 학술에의 접근과 향토 문화유산과의 접촉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냈다. 이에서 그치지 말고 시와 문화원, 그리고 향토사학계 모두가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되고 향상된 학술 행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경험도 인원도 예산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문화원 사무국의 여러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사였고, 그만큼 힘든 행사이기도 하였다.

단지 의정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는 점은 옥의 티 같은 한 점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원들을 만나는 일은 즐겁다"

의정부 시립정보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동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의정부 시립정보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의정부 시민 모두가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

진희경 의정부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어느 시인의 얘기처럼 무언가를 기원하고 싶은, 그런 계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필자는 이동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일하면서 참 많은 시민들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많았다.

이동도서관은 1978년 7월 27일, 처음으로 새마을문고 의정부시지부가 설치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당시에 차량 1대를 운행하였으나, 1996년, 2002년, 그리고 2003년 9월에 차량 1대씩 증차되어 현재 차량 4대가 의정부시 총 92개 지역을 순회하며 도서 대출, 반납 업무를 하고 있다.

장서는 총 3만9천7백52권(아동서적 1만5천6백70권, 성인서적 2만4천82권)이며 회원 수는 1만2천명 정도이다. 또한 월 평균 1만8천권 정도의 서적을 대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매일매일 여러 회원들을 만나는 일은 즐겁다.

회원들의 유형도 가지가지여서 1주일만 책을 늦게 반납해도(대여기간은 1주일이며 무료이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음료수를 손에 들고 오는 회원도 있고, 2, 3개월이 지나서 책을 가지고 와서는 당당하게 책을 빌려 달라는 회원도 있다. 기간이 지나서 반납을 해도 특별한 제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알아서 반납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의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책을 빌리면서 의정부시에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낀다는 회원, 그런가 하면 몇 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책을 빌려 가는 회원도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서적 중에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물론 만화도 요즘엔 학습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읽기 쉬운 책을 보다보면 어려운 책을 들여다보기 싫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 각 동사무소에서도 작지만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어서 독서 인구가 저변으로 확대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이동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업무 이외에 의정부 시립정보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의정부 시민 모두가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

의정부 시립정보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40만 시민을 위한 그럴듯한 도서관이 이제야 생기게 된 것이 무척 아쉬운 감이 있지만 잘 운영되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현재 신시가지가 용현동, 민락동 쪽에 많이 형성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1개의 도서관으로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

■ 의정부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안내(무료)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의정부시민
  또는 의정부내 직장인
- 대출 : 독서회원에게 1~3권 무료대출
- 기간 : 1주일(같은 요일, 같은 시간)
- 회원증 발급양식
  - 회원 가입신청서(차량내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일정표

	1호 차량	2호 차량	3호 차량	4호 차량
월	가능1동	호원동	용현동	신곡2동
화	호원동	호원동	민락동	금오동
수	가능3동	장암동	신곡1동	금오동
목	신곡1동	호원동	민락동	신곡2동
금	녹양동	호원동	민락 · 용현동	신곡2동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기타 자세한 것을 문의할 분은 다음 연락처 참고하기 바람.				
연락처 ☎872-1423, FAX 872-3030, 새마을 문고 의정부시 지부				



'의정부찌개'는 퓨전요리의 원조

이 음식이 생긴 것은
미군부대와 연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부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정부찌개'로
정정해서 불러야 마땅하다.
'의정부찌개'는
의정부 시민들의 끈끈한 삶 속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지혜로 생겨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정부찌개'가
의정부시 지정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굳혔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더 연구하고 계발(啓發)한다면,
한국 안의 '의정부찌개' 뿐만 아니라
'의정부찌개'의 세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영희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일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음식 중의 하나가 '의정부찌개'이다. 필자는 이 '의정부찌개'를 요즈음 유행하는 퓨전음식의 선구음식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찌개'라고 하는 한국 고유음식 종류에 서양의 햄, 쏘시지 등 육가공품과 한국김치를 기본재료로 하는 이 '의정부찌개'야 말로, 동서양의 만남인 퓨전요리의 원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정부찌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서울의 '명동찌개' 에서부터이다. 이 식당 주인이 1980년대 초 우연히 의정부에서 먹은 속칭 부대찌개의 맛에 매료되어서 명동에 '부대찌개' 집을 시작하고부터란다. 알다시피 당시의 명동은 각지에서 명동순례 차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던 시절이고, 그들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렴한 값에 여럿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찌개종류가 적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부대찌개'를 먹어보고, 얼큰한 국물에 '톡톡' 씹히는 햄 · 소시지 맛, 그리고 쫄깃쫄깃한 라면 맛이 일반 김치찌개와 다른 특별한 맛에 반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부대찌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흔하게 간판을 볼 수 있다.



'의정부찌개'는 한국전쟁 이후 아주 어렵던 시절, 지리적인 요건 및 군사적인 요건 등으로 미군기지가 많았던 의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인근지역 미군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부산물들을 그냥 흘러버릴 수는 없었다. 특히 부대규모가 큰 의정부지역은 이런 부산물들이 흔해 그 중에서 쏘시지와 햄 등 비교적 고급 육가공품들을 골라 처음에는 야채와 김치 등을 넣고 볶아서 술안주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국물을 붓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얼큰하게 찌개처럼 끓였더니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이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의정부 부대찌개'로 불려지





게 된 연유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음식의 이름을 '부대찌개'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음식이 생긴 것은 미군부대와 연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부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정부찌개'로 정정해서 불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의정부찌개'는 의정부 시민들의 끈끈한 삶 속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지혜로 생겨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의정부찌개'에 대한 그릇된 선입감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의정부찌개'가 의정부시 지정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굳혔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더 연구하고 계발(啓發)한다면, 한국 안의 '의정부찌개' 뿐만 아니라 '의정부찌개'의 세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한다.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당국에 제안하고자 이 지면을 이용해 소개한다.





이제 김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지만, 먹는 시기를 놓쳐 김치가 시어졌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찌개'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 어떨까.

'의정부찌개'는 서양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김치를 기피하는 아이들에게 그 맛을 적당히 맞추면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 의정부시민의 축제인 회룡제 기간 동안에 '의정부찌개 페스티발'을 열어 주부 또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찌개' 메뉴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도 열어보자. 그리고 의정부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정부찌개'를 만들 수 있게 홍보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거다득이 아닐까? 그 방법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구(舊) 양주군청 옆 골목 입구에는 〈명물 의정부찌개 거리〉라고 쓴 높이 10m의 노란색 아치형(形)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이 바로 의정부 부대찌개가 탄생한 원





이제 김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지만,
먹는 시기를 놓쳐 김치가 시어졌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찌개'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 어떨까.
'의정부찌개'는 서양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김치를 기피하는 아이들에게
그 맛을 적당히 맞추면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의정부시민의 축제인 회룡제에
'의정부찌개 페스티발'을 열어
주부 또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찌개' 메뉴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도 열어보자.

조(元祖) 거리로, 너비 15m 골목 양쪽으로는 현재 15개의 의정부찌개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리고 이 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도 마련되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타 지역에서 일부러 '의정부찌개'를 찾아오는 손님들, 찌개 끓는 소리, 퇴근한 직장인들의 왁자지껄한 푸념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이 골목에는 한바탕 '맛의 축제'라도 벌어지는 듯 활기가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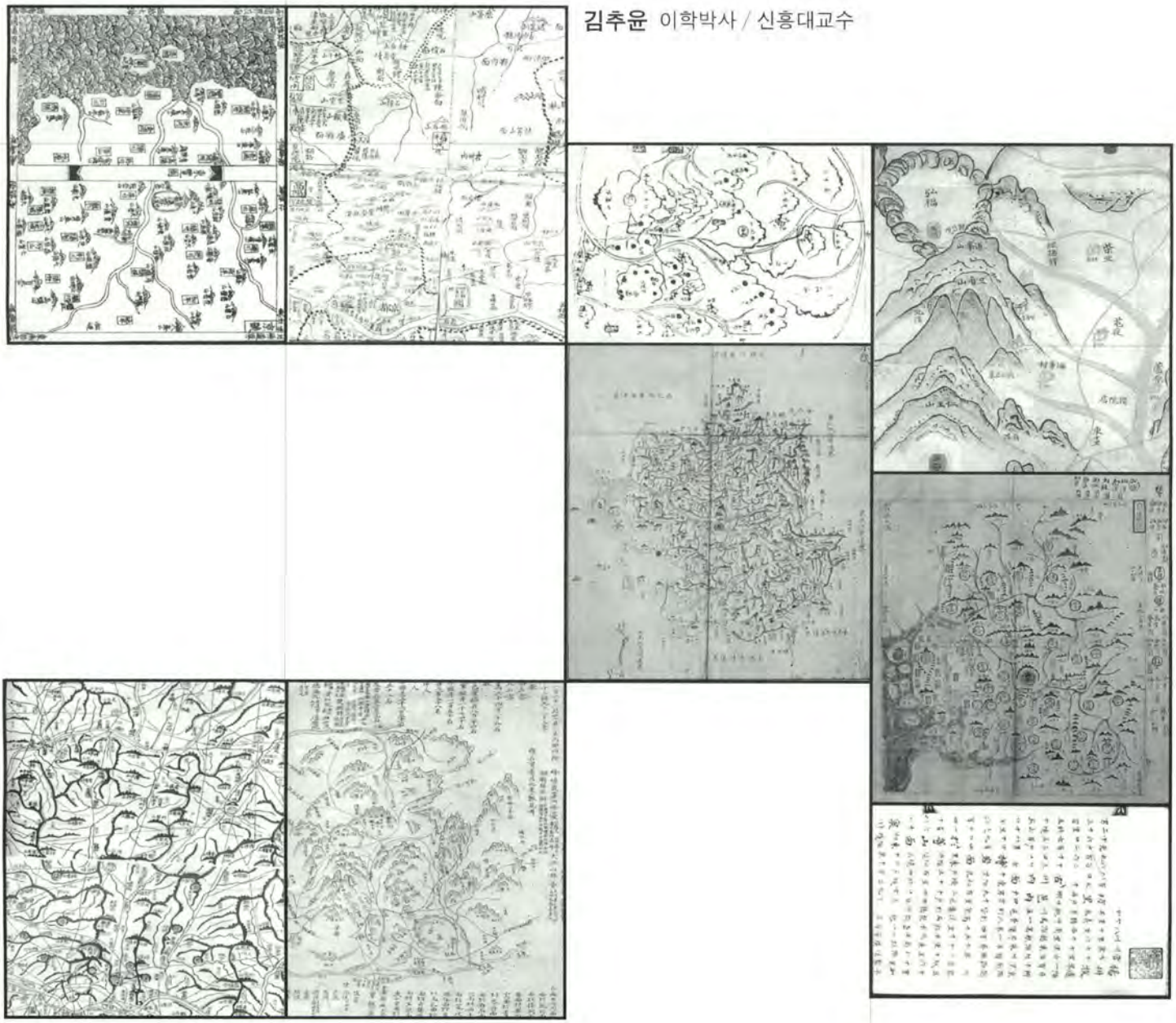
그럼 여기서 '의정부찌개' 44년 원조를 자랑하는 '오뎅식당(허기숙, 70세)'을 찾아 그 맛의 비결을 찾아보자.

오뎅식당은 '의정부찌개' 거리의 초입에 자리한 허름한 식당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리 넓지 않은 홀과 방에 있는 테이블이 대략 스무개 정도 된다. 방에서 쉬고 있던 아줌마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일행을 맞는다. 날씨가 쌀쌀한 탓에 방에 앉아 주문하니 아줌마가 무쇠솥뚜껑을 뒤집어서 찌개거리를 담아내온다. 이 곳은 무쇠솥뚜껑이 냄비대용이다. 살펴보니 푹 익힌 김치가 듬뿍 놓이고 햄과 소세지, 두부, 당면 그리고 숭숭 썰어놓은 대파 위에 고춧가루가 듬뿍 얹혀져 있다. 이것에 담백한 육수를 붓고 가스 불을 켠다. 그러고 난 후 별도로 만들어진 냄비뚜껑을 닫고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반찬으로는 익은 김치 한 접시와 상큼한 맛의 무짠지를 썰어 넣은 물김치가 전부다. 밥도 스텐 대접에 나온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김이 뚜껑위로 새어나온다. 국자로 찌개국물을 골고루 부어주면서 다 끓여지기를 기다린다. 다 익으면 국자로 적당한 분량을 떠서 자기 대접에 넣어 먹는다. 이때 양이 적다 싶으면 라면을 넣고 육수를 더 부어서 먹는 맛 또한 별미이다.

'의정부찌개' 1인분의 가격은 6천원이다. 이 집이 손님이 많은 것은 푹 익힌 김치를 듬뿍 넣어주는 것과 담백한 육수맛 외에 양이 많은 것에 있는 것 같다. 같은 골목 안에 있는 같은 '의정부찌개' 식당인데도, 이 식당에만 유난히 손님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식당에 변함없는 맛이 손님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비결이다. "올해는 배추 값이 비싸서 재미가 없다"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허기숙(70세) 사장은 아직도 정정한 모습이다. 더구나 가게를 확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꾸준히 운영하는 모습에서, 이 식당에 대한 믿음이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한다. 일행은 별안간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큰한 '의정부찌개'를 먹고 난 후 한결 푸근해진 마음으로 오뎅식당을 나왔다.

옛 지도에서 본 의정부

김추윤 이학박사 / 신흥대교수





Ⅰ. 서론 : 역사와 인간의 흔적을 담은 옛 지도

옛 지도는 한 장의 종이 위에 이 땅에 살다간 인간의 역사적 흔적을 담은 그릇이다. 더구나 옛 지도는 당채로 된 채색의 회화식 지도이기에 예술품이자 과학품이다.

옛 사람들은 가족과 부족시대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거주공간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목(生木), 고목(古木), 큰돌(立石), 자연하천, 자연산맥 등을 경계로 하여 구역을 획정해 나갔다. 그 후 인지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거주공간을 나무, 모래, 종이, 점토판, 돌, 나뭇잎, 갈대, 동물뼈, 짐승가죽 등에 그려서 자기들의 거주공간을 지도에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나일강변에 자생하는 일종의 갈대잎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점토판인 테라코타(terra cotta)에, 고대 로마에서는 대리석 돌에, 한국인들은 고구려의 요동성총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분벽에, 혹은 종이에 옛 지도를 그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침략,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고 현존하는 지도는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과 일제시대, 해방이후 지도뿐이다.

지도는 그 당시의 땅을 그린 것이지만 그 속에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도 문자로 기록해 놓았기에, 옛 사람들의 예술, 과학 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적 사실들을 읽어낼 수 있다. 옛 지도는 때로는 공상소설처럼 미지의 땅, 상상의 땅을 그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의 땅을 그린 것이므로, 옛 지도를 잘 분석하면 그 당시 그 땅에서 살았던 옛 사람들의 참모습을 복원해 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공간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고지도(古地圖)는 과거의 복원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도는 지역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자연현상 등이 각인(刻印)된 그림이며 정보이다.

사람의 생활무대인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며, 새로운 여러 현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그 중에서 어떤 현상들은 아직까지 남아 옛 모습을 전해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그 당시의 모습을 지도(地圖)를 통해서 혹은 지명(地名)을 통해서 남기도 하고 어떤 유물이나 자연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의외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옛 지도는 지역이라는 박물관의 단면을 그려 놓은 조감도이다.

의정부에 관한 옛 지도는 의정부의 과거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문헌자료이다.

의정부의 옛 지도는 의정부의 옛 모습을 비추어 주는 종합적인 자료이다. 특히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현상을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대한 역사적 연구이외에 지리학, 지역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지도 제작당시의 여러 환경을 시계열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의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옛 지도가 의정부로 독립된 지도는 없고 옛 양주관할의 시북면, 둔야면 지역이므로 대부분 개략적인 의정부의 형상만을 표현했기에 심층적인 분석은 안되지만 의정부의 역사적 맥락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하는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Ⅱ. 전국지도에 나타난 의정부

(1) 동람도의 의정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세종 6년(1424년) 이래의 관찬지지(官選地志) 편찬사업의 결실이며 성종 12년(1481년)에 완성되었다. 그후 5권이 증보되어 중종 26년(1531년)에 현재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되었다.

이행(李行) 등이 편찬한《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권수(卷首)에는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붙어 있고, 또 경기도 등 각도의 지지(地誌)를 서술하기에 앞서 도별도(道別圖)가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 도별도에 「楊州」가 기록되어 있고 주변에「天寶山」,「佛岩山」,「三角山」 이름이 기록돼 있다.

팔도총도의 경우 앞서 발간된 정척과 양서지의 동국지도(東國地圖)보다 그 내용이 부실한데, 이것은 지도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책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목판(木板)의 규격에 맞게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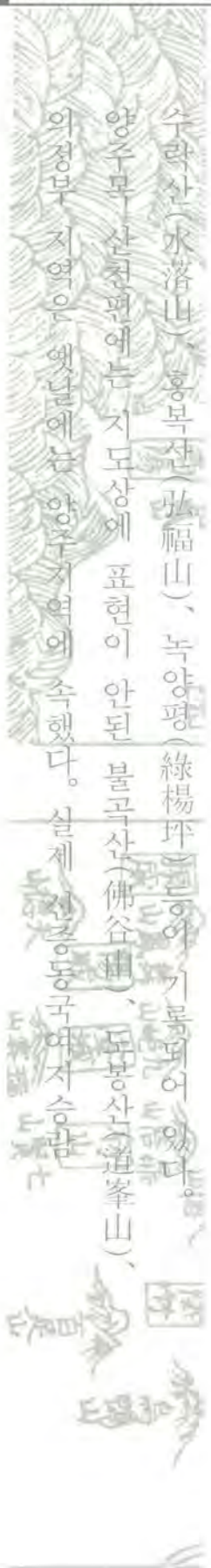
《성종실록(成宗實錄)》권 138, 성종 13년 2월 임자(壬子)조에 의하면 양성지(梁誠之)의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동람도가 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와 도별도인 팔도주현도(八道州縣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동람도(東覽圖)라고 부른다. 이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이것은《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팔도주현도의 판심(版心)에 동람도라고 판각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동람도의 첫번째 특징은 산천사전제(山川祀典制)에 의한 중사처(中祀





處)와 소사처(小祀處)를 주로 표시한 지도라는 것이다. 동람도에는 하천, 산, 주군현(州郡縣)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고 부수적으로 고개, 수영 일부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조선이 건국된 후 산천신(山川神)에 대해서 해당 고을의 수령이 춘추(春秋)로 제사 지내던 제도를 그대로 지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태조 1년(1392년) 예조전서(禮曹典書)였던 조업(趙業)이 역대 국가에서 산천신에 대하여 제사를 드렸으므로 국가에서 일정한 규범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각 주현의 성황신(城隍神)을「某州某郡城隍之神」이라는 위패를 마련하고 해당 고을의 수령이 춘추로 제사 지냈던 것이다.

태조 2년(1393년)에 이조(吏曹)는 명산대천(名山大川)과 성황신, 해도신(海島神)에 대해서 봉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지리산, 무등산, 삼각산 등은 호국백(護國伯)에, 나머지 명산대천신들은 호국신(護國神)에 봉작하였다. 그 후 태종 13년(1413년)에 사제(祀制)가 구분되어 사직(社稷), 종묘(宗廟) 등은 대사(大祀)를 드리고, 선농단(先農壇)과 문선왕(文宣王) 등은 중사(中祀)를 드렸는데, 풍사신(風師神)과 운사신(雲師神)과 함께 주현의 성황신도 중사(中祀)를 드리도록 승격시켰다.

산천사전제(山川祀典制)가 확립된 것은 태종 14년(1414) 8월로 당(唐)의 예락지(醴樂志)와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을 참조하여 제사 등급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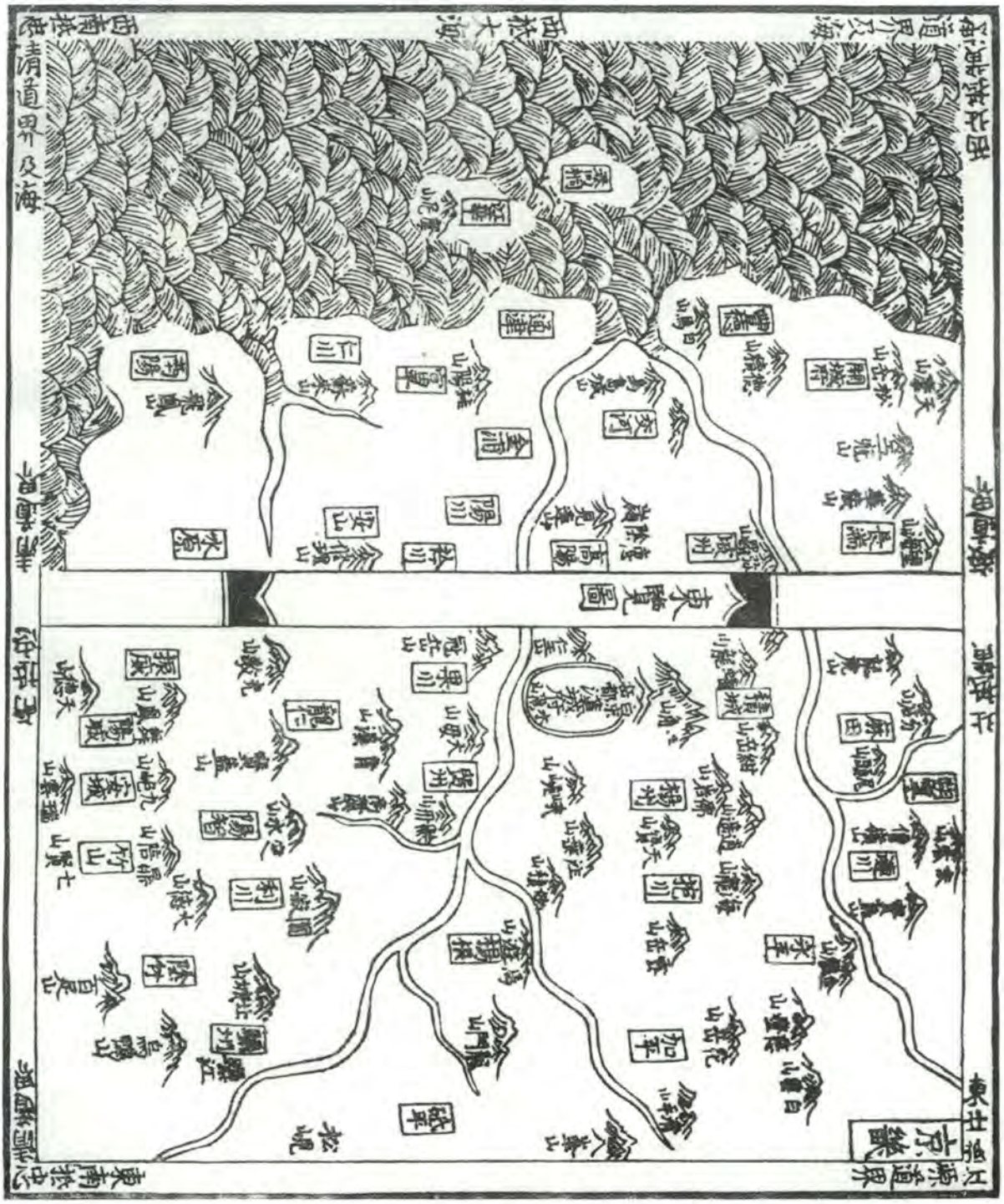
동람도의 경기도편에는 대천(大川)으로 한강을 비롯하여 임진강 일부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한강을 남한강, 북한강으로 나누어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인천 소래산 밑에 작은 하천이 있다.

의정부 지역은 옛날에는 양주지역에 속했다. 실제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 산천편에는 지도상에 표현이 안된 불곡산(佛谷山), 도봉산(道峯山), 수락산(水落山), 홍복산(弘福山), 녹양평(綠楊坪) 등이 기록되어 있다.

두번째 특징은 경기도 서해안의 바다를 파도무늬로 판간한 점이다. 이것은 조선 초기 고지도의 독특한 표현방식이다.

세번째 특징은 지도가 하천, 산, 주군현을 제외하고는 기술내용이 없어 매우 단순한 지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가 옛부터 국가기밀에 속하기에 널리 간행되어 분포되는 동국여지승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사처(中祀處)와 소사처(小祀處)만 표기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동람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많이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보다도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에 계속이어져 우리나라 지도제작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현전하는 동람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지도 1〉 동람도



(2) 청구도의 의정부

김정호는 순조 34년(1834년) 동여도지(東輿圖志)를 만들고 이를 기본으로 청구도(靑丘圖)를 만들었다. 대동여지도가 1861년 제작되었으니까 대동여지도보다 27년 앞서서 먼저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가 청구도이다.

청구도는 일명 청구선표도(靑邱線表圖) 혹은 청구요람(靑邱要覽)이라고도 불리며 판간 인쇄가 안되었기에 제작 당시의 원본은 없고 전사본(轉寫本)만이 고려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청구도는 4권짜리(규장각)와 2권짜리(고대, 서울대, 국립중앙도서관)로 되어 있다. 두 권은 건(乾), 곤(坤), 혹은 기(奇), 우(偶)로 되어 있다.

청구도의 특징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보다도 축척이 크고 행정단위가 아닌 현대식 대축척 지도와 같이 일정한 크기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구도는 대축척 도엽(圖葉)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현대식 지도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청구도는 방면(坊面), 고읍(古邑), 진보(鎭堡), 성곽(城郭), 창고(倉庫), 역참(驛站), 봉수(燧燧), 산수(山水), 목장(牧場), 도서(島嶼) 등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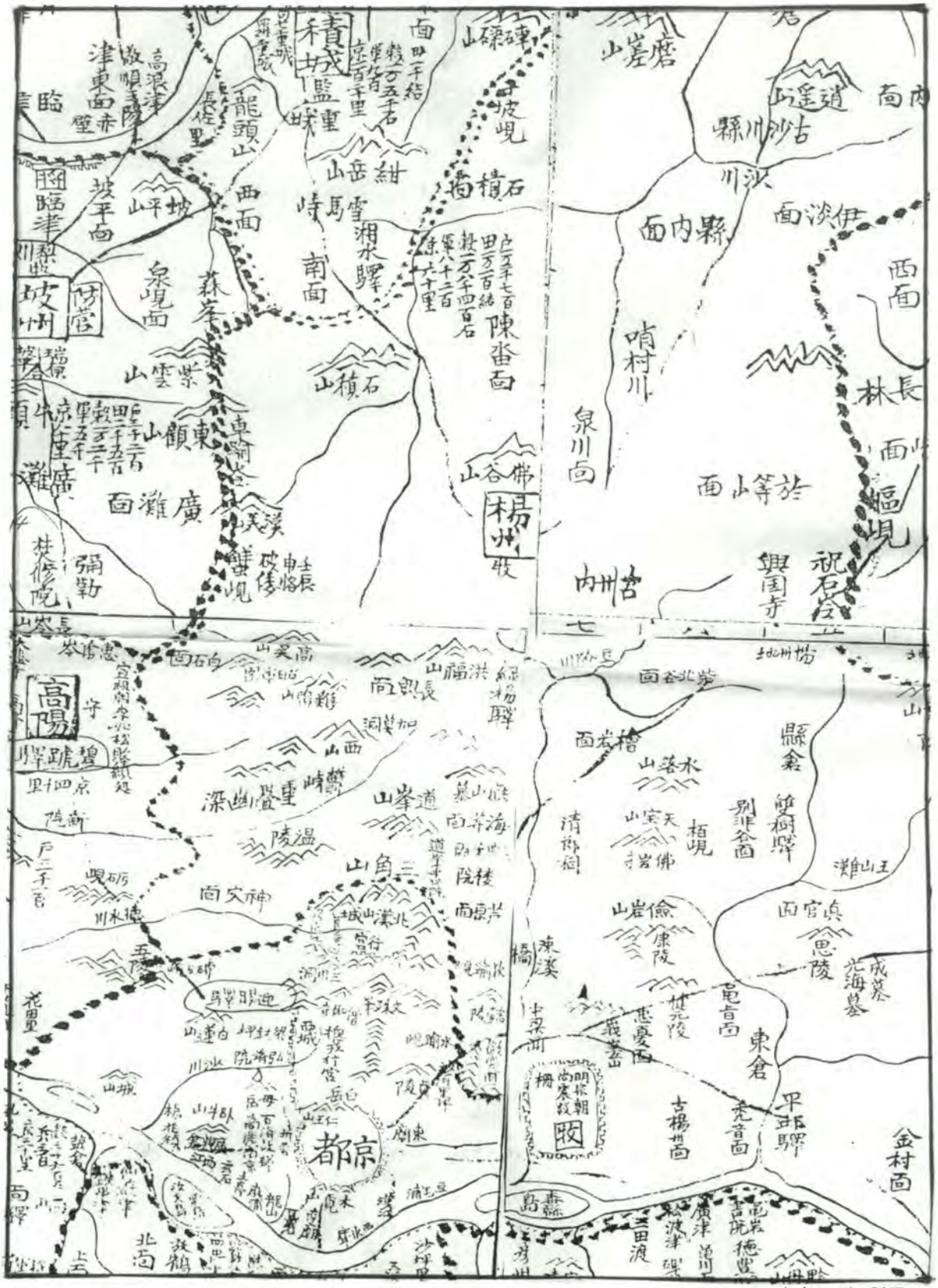
김정호는 1830년대 중엽인 순조 말에서 헌종 초에 《청구도》와『동여도지』를, 1850년대인 철종대에《동여도》와 『여도비지』를, 1850년대 말부터 1860년대 초인 철종 말년에서 고종 초에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지도와 지지 편찬 작업에 崔漢綺, 崔 煥, 申櫶과 같은 후원자들이 재정면에서, 또 자료와 정보 제공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음도 밝혀졌다.

전국을 남북 29층(層), 동서 22판(版)으로 나누어 좌표방안(座標方眼)을 만들었다. 방안 하나는 남북이 1백리(里), 동서가 70리가 되도록 구획하였고 실지 크기는 25㎝×17.5㎝이니 지도의 축척은 대동여지도와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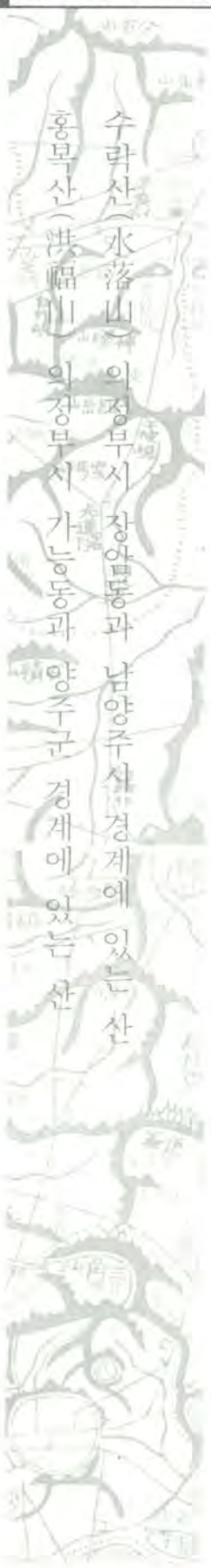
남북 29층을 층별로 나누어 홀수층은 1권에 짝수층은 2권에 수록하였다.《청구도》가 지니는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도》는 대형 전도를 기초로 전국을 방안 격자로 나누고, 남북으로 잘라 각 층을 단위로 지도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면적이 다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린 이전의 군현지도책에서 보이는 축척의 불일치나 도면 넓이의 차이를 극복하였다.

또한 방안 격자를 지도 안에 그리지 않고 도곽선에 10리 눈금을 표시함으로써 방안으로 인한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도면 외곽의 눈금에 의해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안에는 산천을 비롯한 지형



〈지도 2〉 청구도



아니라 성곽 · 창고 · 역도 · 봉수 · 진도 · 교량 · 제언 · 산성 · 서원 · 사찰 · 고읍 등 경제 사회 · 문화적인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군현에는 호수 · 전결 · 곡총 · 군병 등의 기초적인 자료가 주기되어 지도와 지지를 결합한 양식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이전의 지도와는 달리 각 군현의 경계가 그려져 있어 군현의 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청구도의 양주목 부분을 살펴보면, 홍복산(洪福山), 녹약역(綠楊驛), 누원(樓院), 도봉산(道峯山), 수락산(水落山), 불곡산(佛谷山), 고주내(古州內), 해동면(海等面), 장흥면(長興面), 가악산(加莫山), 서산(西山), 축석(祝石), 흥국사(興國寺), 중랑천(中浪川), 청절사(淸節祠), 천보산(天寶山), 불암사(佛岩寺), 천천면(泉川面), 진답면(陳沓面), 석적면(石積面), 백석면(白石面), 삼각산(三角山), 석적산(石積山) 등 행정지명, 하천지명, 고개지명, 역원명, 사원명 등 다양한 종류의 지명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현 의정부 지역관내에 속하는 것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청구도상에 나타난 의정부 관내 종류

종 류	지도상 명 칭	현재 위치
驛名	綠楊驛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었던 옛 역 이름
院名	樓院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었던 옛 다락원 이름
山名	道峯山	의정부시 호원동과 서울시 경계에 있는 산
	洪福山	의정부시 가능동과 양주군 경계에 있는 산
	水落山	의정부시 장암동과 남양주시 경계에 있는 산
河川名	中浪川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복판을 가로 질러 흐르는 하천
嶺名	祝石嶺	의정부시 백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行政名	柴北谷面	옛 양주군 둔야면(屯夜面)과 시북면(柴北面)을 합쳐서 시둔면(柴屯面)이라 하였고, 이 시둔면이 오늘날 의정부 시역이 되었음. 시북곡면은 시둔면의 전신이다.



(3) 대동여지도의 의정부

김정호(金正浩)는 황해도 토산(兎山)출신으로 1804(?)에 태어나서 고종 3년(1866)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 정확한 연대는 아직 모른다.

김정호는 한양에 와서 남문(南門) 밖 약현(藥峴)에 살았으며 당호(堂號)를 고산자(古山子)라고 자호(自號)하였다. 그리고 김정호가 만든 지지(地志)나 지도의 판목(板木)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숭실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어 판목을 압수 소각했다는 설은 잘못된 것 같다.

또 김정호의 백두산 등정설과 옥사설(獄死說)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조작한 것으로 그는 실제로 백두산을 등정하지도 안았고, 옥사하지도 안았다.

여지학(輿地學)에 깊은 관심을 가진 김정호는 순조 34년(1834년)경에 동여도지(東輿圖志)를 1차로 완성하여 이를 기본으로 청구도(靑丘圖)를 1834년에 만들었다. 그 후 약 20여년간 동여도지를 보완하여 철종 2년(1851년) 이후에는 최성환과 함께 여도비지(輿圖備志)를 편찬하였고, 이 여도비지를 기본으로 동여도(東輿圖)를 제작하였다.

김정호는 이 동여도를 저본으로 하여 대동여지도를 판각하였는데 철종 9년(1858년)에 시작하여 철종 12년(1861)에 완성되어 초간되었고, 그 후 6년 후인 고종 원년(1864년)에 재간되었다. 이 사이에 김정호는 철종 13년(1862년)부터 동여도지와 여도비지를 정리하여 대동지지(大東地志)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고종 3년(1866년)까지 편찬을 계속하다가 미완인 채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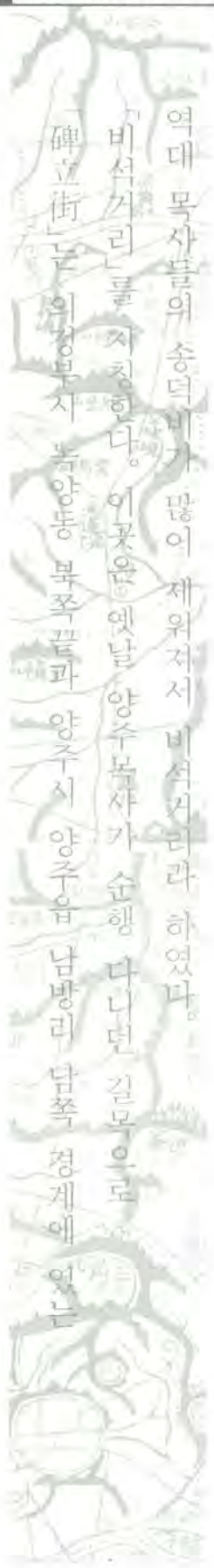
김정호는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와 같은 3대 지지와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3대 지도를 남긴 위대한 지리학자였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축척은 대개 지금까지 1:16만~1:16만 8천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대동여지도의 거리는 ≪대동지지≫에서 밝힌 「주척(周尺)을 쓰되 6척(六尺)은 1보(步)이고, 3백60보는 1리(里)이며, 3천6백보는 10리로 된다」라는 조선시대의 거리개념으로 주척의 길이를 대략 20.7㎝~21.2㎝로 환산한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내용은 읍치(邑治), 성지(城池), 진보(鎭堡), 역참(驛站), 창고(倉庫), 목소(牧所), 봉수(烽燧), 능침(陵寢), 고현(古縣), 방리(坊里), 도록(道路), 고산성(古山城), 고진보(古鎭堡) 등이 표시되어 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제작한 마지막 지도로 지리지에 기초하여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여 내용이 풍부하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이루어졌던 지도성과의 장점만을 취합하였기에 지도의 윤관, 지도의 내용, 지도의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도보다 뛰어나다.

한 예로《대동여지도》는 분철첩식(分哲疊式)의 형태로 되어 있어 책자의



형태에 비해 매우 간략하고, 지도를 보거나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편리하다.

신헌(申櫶)은 그의 문집『금당초고(禁堂初稿)』의 '대동방여도서(大東方輿圖序)'에서 자신이 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와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를 서로 대조하고 여러 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 하였으며, 이 일을 김정호에게 위촉하여 완성 하였다고 하였다. 형조 · 공조 ·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강화도수호조약 체결 때 조선측 대표로 당시 대표적인 무관이었던 신헌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헌 자신이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면 김정호는 관청에 소장되어 있던 여러 지도를 두루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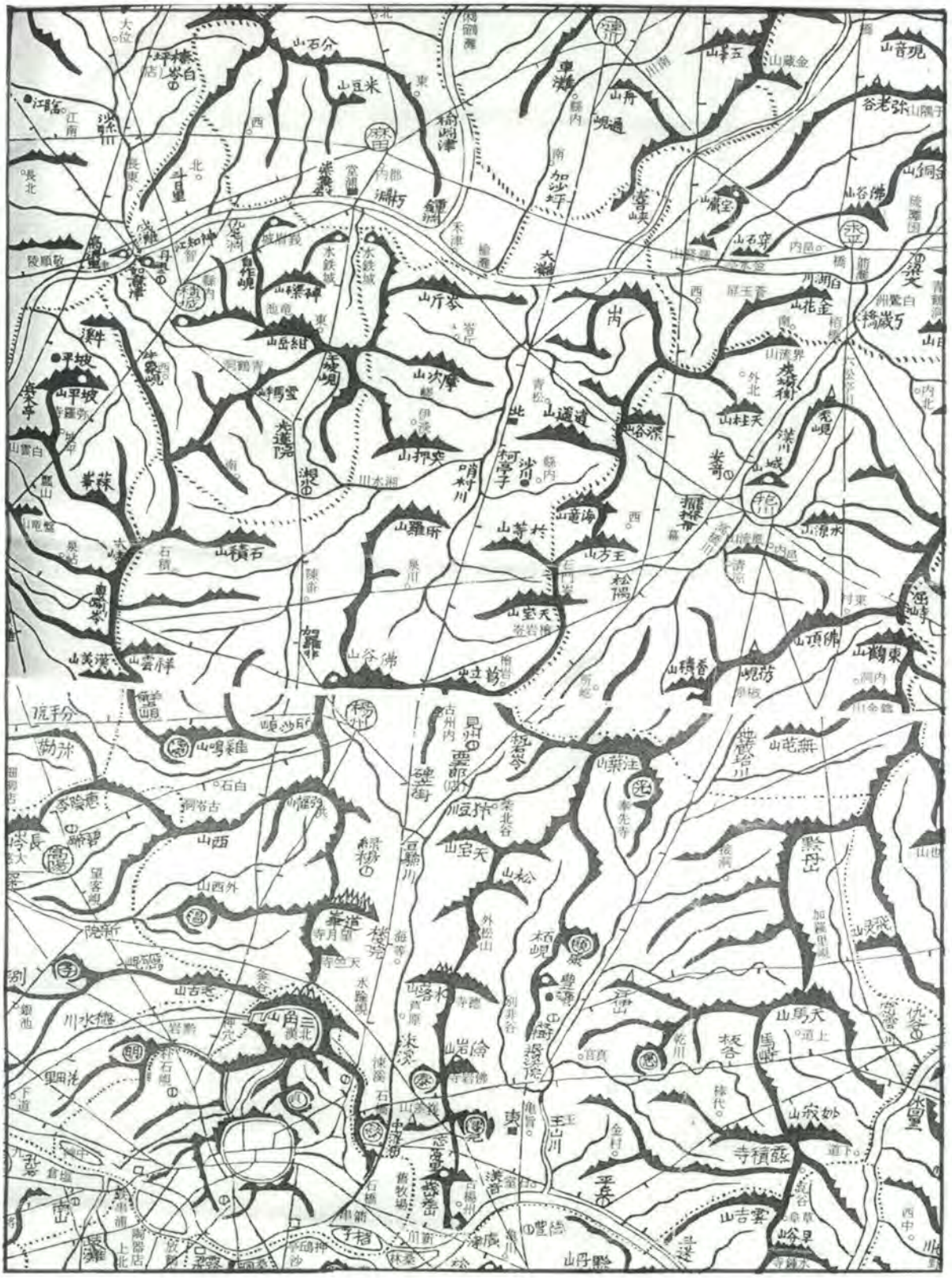
《대동여지도》는 22첩으로 구성된 절첩식 지도이다. 즉,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1백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동서를 80리 간격을 한 면으로 했는데 두 면이 한 판으로 구성되어 각층의 판을 병풍식으로 접어 첩으로 만든 것이다. 지도의 앞부분에 방안 크기가 수록되어 있어, 《대동여지도》는 지도 내부에 축척을 나타내는 방안표시가 없으나 청구도처럼 직선으로 표시된 도로 표시선상에 10리 간격으로 점을 찍어 나타낸 방안지도이다.

지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청구도》에서 보이는 설명을 없애 지도와 지지를 분리시켰다. 이는《대동지지》와 같은 지지를 별도로 저술하여 지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정호는 지도표(地圖標)라는 범례를 고안하여, 다양한 내용을 간략한 부호로 표현하였다. 특히 도로는 하천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시했고, 10리 간격 마다 점을 찍어 표시를 함으로써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축척의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대동여지도》의 표현 양식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산지의 표현이다. 산도(山圖)에서 사용되는 산의 표현 방식을 응용하여 개별 산봉우리를 그리지 않고, 끊어짐이 없이 산줄기를 연결시켜 그렸다. 이는 전통적인 자연 인식체계이기도 하며, 풍수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산줄기의 험이(險夷)와 크기에 따라 굵기를 달리하여 그렸으며, 특정 산들을 강조하여 산세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산악투영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산계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천수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하천을 가르는 분수계는 평지에 가까운 경우라도 산줄기로 표현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척지도의 두 계열, 즉 정상기의《동국지도》이후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 · 도별지도와, 그리고 국가와 관아에서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郡縣地圖)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지한



〈지도 3〉 대동여지도



일목요연한 대축척(大縮尺) 전국지도(全國地圖)를 만들었던 점이다.

또한 전국지도를 간편한 형태로 고안하고, 목판본으로 간행을 함으로써 지도의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다. 《대동여지도》의 간행으로 비로소 일반 민간에서도 우리나라 전국의 각 군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간편한 지도를 볼 수 있고, 지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대동여지도상에 나타난 의정부 지역의 명칭을 살펴보면 27년이나 앞서 발간된 청구도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현재의 의정부지역 관내에 나타난 양주목 관할의 지명을 살펴보면 도봉(道峯), 누원(樓院), 녹양(綠楊), 홍복산(弘福山), 비립가(碑立街), 축석령(祝石嶺), 수락산(水落山), 송산(松山)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홍복산의 한자 명칭이 먼저 발간된 청구도의 「洪」에서「弘」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는「弘」으로 쓰고 있다.

「비립가(碑立街)」는 의정부시 녹양동 북쪽끝과 양주시 양주읍 남방리 남쪽 경계에 있는 「비석거리」를 지칭한다. 이곳은 옛날 양주목사가 순행 다니던 길목으로 역대 목사들의 송덕비가 많이 세워져서 비석거리라 하였다. 동네사람들은「비석거리」를「비성거리」라 부르고 한자로 비우(碑偶)라고 쓰고 있으나 이것은 일제가 만든 것이고, 원래 이름은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립가(碑立街) 즉, 글자 그대로「비석이 서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송산(松山)」은 의정부시 민락산 송산사(松山사)가 있는 산을 말한다.

「두험천(豆驗川)」은 현재의 의정부시 한복판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중랑천을 말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둔야면 독두천교(지금의 포천로터리 양주교) 부근에 두험천참(豆驗川站) 이라는 파발이 있었는데, 이는 발장 한 명과 군인 두 명을 두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두험천(豆驗川)은 중랑천(中浪川)의 옛 이름이다. 여지도서의 기록을 보면, 두험천은 양주 둔야면에 있는데 불국산(佛國山)에서 원출(源出)하여 읍내 앞을 남류하다가 독두천(獨豆川)과 합류하고 전곶교(箭串橋) 밑을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 했다. 그러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두험천은 주(州) 남쪽 십오리에 있는데, 불곡산(佛谷山)에서 원출하여 남류하다가 독두천(獨頭川)과 합쳐서 중량포(中梁浦)가 되고, 전곶교를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불국산(佛國山)과 불곡산(佛谷山)은 지금의 불곡산(佛谷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독두천(獨頭川)은 지금의 중랑천(中浪川)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여지도서에 의하면 독두천은 홍복산(弘福山)에서 원출하여 용연담(龍淵潭 : 지금의 가능수원지)이 되고 남류하여 두험천과 합류한다고 하고, 대동지지에는 독두천은 주 남동 10리에 있으며 축석령(祝石嶺)에서 원출하여 서쪽으로 흘러 두험천과 만난다 하였으니, 그 원출기점(源出起點)이 각기 달라서 여지도서의 독두천은 지금의 백석천(白石川)이 되고, 대동지지의 독두천(獨頭川)은 지금의 부용천(芙蓉川)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Ⅲ. 군현도에 나타난 의정부

(1) 해동지도의 의정부

해동지도는 대략 1760년대에 편찬된 지도로 추정되며, 3백70종의 지도를 8첩에 수록한 군현지도이다. 세로 47.5㎝, 가로30㎝의 지도책에 팔도의 도별지도와 330여 군현지도가 그려져 있다. 물론 그 밖에도 천하도(天下圖), 유구도(琉球圖), 진보지도(鎭堡地圖), 도로도(道路圖) 등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채색 필사본으로 제작자 미상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산천, 읍성, 향교, 면, 서원, 도로, 강계, 사찰, 누정, 읍치의 주요 기구들이 표현되어 있다.

주기(註記)에는 서울부터의 거리, 성곽의 크기, 사방강계, 인구, 전답, 곡물 총수, 봉수, 고적, 산천, 산성, 역원, 군명, 불우(佛宇), 토산, 창고 등 지지적 내용을 기록하여 지도와 지지를 결합한 형태의 지도이다.

해동지도 첩에는 경기도 군현지도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양주목 지도가 그려져 있다.

해동지도에 나타난 의정부 지역을 살펴보면 둔야면, 회룡사, 홍복산, 도봉산, 수락산, 시북곡면 등의 명칭이 나온다. 대동여지도나 청구도에서 볼 수 없었던 둔야면(芚夜面), 회룡사(回龍寺)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의정부시 지역은 둔야면(屯夜面)과 시북면(柴北面)에서 첫 자씩 따서 통합시킨 시둔면(柴屯面) 지역이다. 시북곡면은 후에 시북면으로 바뀌었다. 回龍寺는 현재 의정부시 호원동 산 91번지 원도봉산 산록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찰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부도 3기, 탑비 1기가 있다.






京都
漢江
加平界
大伊山烽臺
烽燧戍峯山烽臺
祠廟楊津祠
郡名買省昌化來蘇見州
各色軍保并八百二十四名
軍保并一千七百四十名
軍保并一百五十名
并二百五十八名
十八
軍保并三千六百五十一名
及丹兵并三百六九名
五十二名
一百六十三結四十負一束內擬頃除
十十三結九十三卜三束
四石零
八石零
萬六千九百二十九石
穀
德海院
廣仁院
土產絲麻玉石
單銀口魚

〈지도 4〉 해동지도

누원은 서울 북쪽의 입구에 있는 유명한 원으로 다락원이라 불린다. 현재의 의정부 다락원에 조선시대에 樓院店이 있음을 지도상에서 알 수 있다.

(2) 규장각(10359번)의 의정부지도

1872년(고종 9)인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양주목 지본채색 필사본 그림지도로 양주목을 진경산수화에 가깝도록 지도를 잘 그렸다. 현재 의정부시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중랑천을 이 당시에 청랑천으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즉 중랑천의 원래 이름이 청랑천임을 알려주는 주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도상에는 그 이전의 지도보다 구체적으로 누원점(樓院店), 둔야(芚夜), 녹양역(綠楊驛), 사창(社倉), 수락산(水落山), 축석령(祝石嶺), 홍복(弘福), 도봉산(道峯山), 울대현(鬱垈峴), 용연(龍淵), 시북(柴北) 등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나 녹양역에서 도봉산 산능선을 넘어 장흥쪽으로 가는 고개가 울대현(울대고개)으로 나타나 있다. 울대고개는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고양시 쪽으로 가는 장흥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주목 산수(山水)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나온다.

鬱峙 西南 二十里 高陽路』즉 "울치고개는 양주관아에서 서남쪽으로 20리 지점의 고양가는 길에 있다"라는 말이다. 이 울치가 현재의 울대고개이다. 지금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울대고개 밑에 울대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울티 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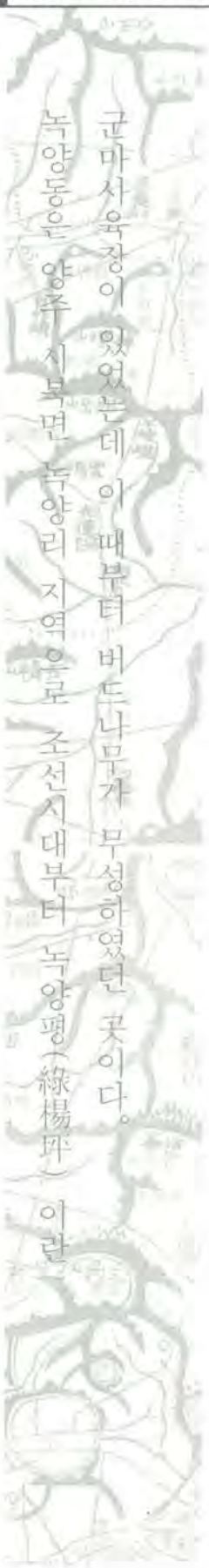
현재의 가능 수원지가 있는 곳은 옛날에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 용연이라 불리는 용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복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천연적인 원형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도 의정부시의 수원지로 쓰이고 있다.

또 의정부 지역의 바탕이 된 시북면과 둔야면의 명칭이 보이고, 그 옆에 각각 사창(社倉)이 있음을 창고 그림을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의정부시 지역은 옛 시둔면 지역인데, 이 시둔면은 시북면(柴北面)과 둔야면(芚夜面) 지역을 합치면서 각각 첫글자를 따서 조자한 것이다.

사창(社倉)은 조선시대 군현에서 지금의 面 단위 정도의 촌락에 곡물 대여기관으로 있던 기구이다. 이 사창에는 곡물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倉)가 있었다. 저장된 곡식은 서울 경창(京倉)으로 가져가기 위한 세곡이 아니라 사민(社民)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다. 춘궁기에 대여해 주고 가을에 이식(利息)과 함께 받아들여 보관했던 것이다. 사창은 1448년 이보흠(李甫欽)이 대구군(大丘郡)에서 처음 시험 실시한 후 문종 11년 (1451)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실시 되다가, 관리들의 농간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실시 되지 못하다가, 고종 3년(1866) 조두순, 김병국 등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에 반해서 중앙정부에 납부하기 위한 조세미(租稅米)의 수송을 위하여 수로 연변에 설치한 창고를 조창(漕倉)이라 한다. 국가에서는 지방의 세곡을 수송하기 위하여 강변에 수운창(水運倉)과 강창(江倉)을, 해변에는 해운창(海運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의정부 다락원에 조선시대에 누원점(樓院店)이 있음을 지도상



고 건어물과 곡물을 매점매석하므로 육의전 상인들이 상품구입에 많은 곤혹을 치른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전인 정조5년(1781)에 서울 어물전 상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실상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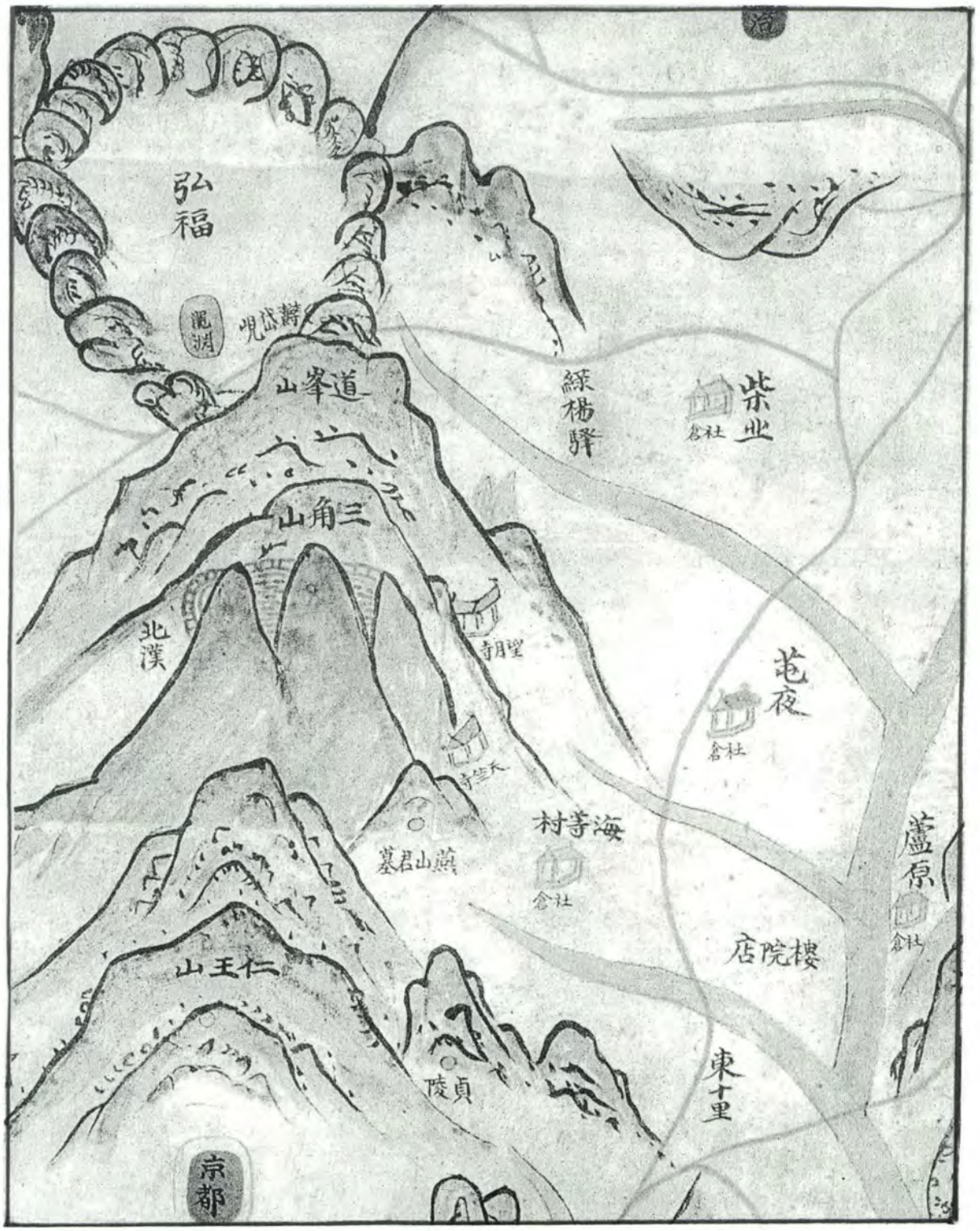
「동북면(東北面)에서 들어오는 건어물(乾魚物)을 양주 누원점(楊州樓院店 : 지금의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에 사는 모리배들이 매점해 두었다가, 칠패와 이현의 난전 상인들에게 서서히 공급하며, 게다가 수시로 값을 올려 팔므로 장안 어물값이 폭등할 뿐 아니라, 어물전이 실업상태에 빠져 있다」 사실 그 당시 손도강(孫道康) 이라는 사람은 난전의 우두머리로서 다락원에 사는 상인들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받아 원산에 가서 어선(漁船) 전체를 매점하거나, 아니면 의정부, 포천 등지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어물을 몽땅 사재기 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지금도 이 동네를 다락원으로 부른다.

옛날의 역(驛)은 오늘날의 통신 · 교통 기능을 함께 담당하던 곳으로 정부(政府)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숙식과 역마(驛馬)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또 지방의 특산물인 진상품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물자를 수송하는 일도 함께 했다. 역에는 우두머리격인 역장(驛長)과 역리(驛吏), 역졸(驛卒), 역정(驛丁)을 몇 명씩 두었는데, 그 인원은 역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녹양역(綠楊驛)은 경성(京城)에서 함경북도 경원(慶源)까지 연결되는 첫 번째 역인 두참(頭站)으로서 말 10필과 노비, 역리가 72명이었다고 기록돼 있으니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역임을 알 수 있다. 역은 보통 대로(大路)에 30리마다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이곳 녹양역(綠楊驛)은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역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오세문(吳世文)의 시를 보면 그가 녹양역에 들렀을 때는 버드나무가 많이 없어진 듯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다.

꽃이 피어 마을은 더욱 아름답건만
버드나무 없으니 역 이름만 외롭구나.
높디 높은 나무엔 햇빛이 찬란한데
마른 잎에 이는 바람 쓸쓸하구나.
有花村價重 無柳驛名孤
喬木日先照 葉枯風自呼

원래 녹양동은 양주 시북면 녹양리 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녹양평(綠楊坪) 이란 군마사육장이 있었는데 이 때부터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이다.



〈지도 5〉 규장각소장 양주목 지도

여지도서 구성은 전 55책 이며, 경기도(책1~5) · 충청도(책6~13) · 강원도(책14~17) · 황해도(책18~21) · 평안도(책22~30) · 함경도(책31~35) · 경상도(책36~49) · 전라도(책50~55)의 순으로 되어 있다.

(3) 여지도서의 의정부

여지도서(輿地圖書)는 조선시대 영조조에 각도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지도서라 함은 여지도(각읍 지도)와 서(각읍 지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붙여진 책명이다. 여지도서는 현재 원본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본래는 천주교 한국교구장 뮈텔(A.Mutel)의 모집문헌중의 하나로 추측된다.

여지도서의 편찬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2월 초8일자에 잘 기록되어 있다.

즉, 여지도서 편찬의 시초는 홍양한(洪良漢)(改名 良活)이 홍문관(弘文館)에 있을 때 영조에게 아뢰어 팔도읍지(八道邑誌)를 수정(修正)하여 올린데서 비롯된다. 그 후 김응순(金應淳)이 다시 진언하여 개수정(改修正)하였고, 다시 이은(李)이 팔도(八道)에 행관(行關)하여 이 사업을 계속할 때 그 밑에서 도록을 첨책하던 서명응(徐命膺)이 이 책을 여지도서(輿地圖書)라 이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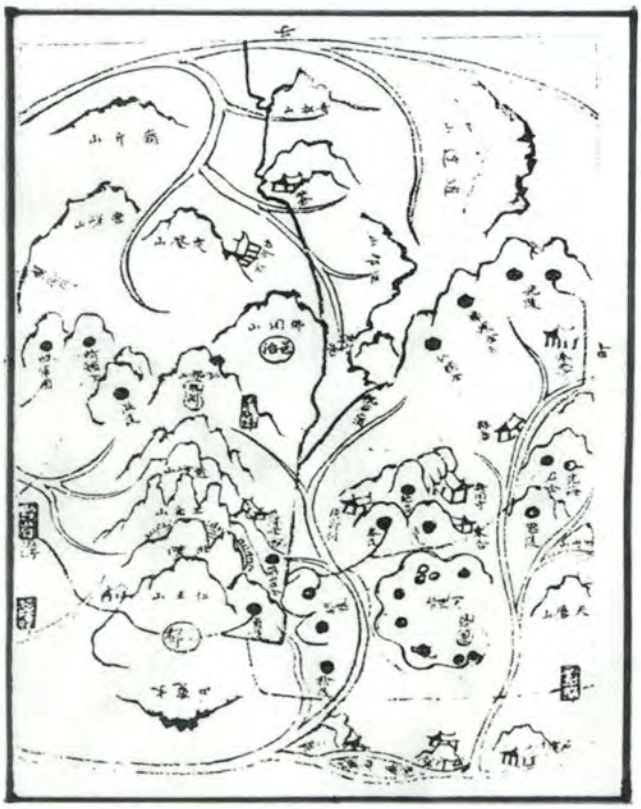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편찬(編纂)하게 된 동기는 홍양한(洪良漢)의 발의(發意)에 의한 것이었다. 영조33년(1757) 8월 6일 을축, 홍문관(弘文館) 수계(境界)를 표시한 삼국기지도(三國基址圖)와 정항령(鄭恒齡)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산천도로(山川道路)가 치밀하고 백리척(百里尺)을 써서 거리(距離)가 정확한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올리니 英祖가 크게 감탄하여 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一本 찬진케 하였다. 그 후 9일에 영조는 지도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고 홍양한(洪良漢)은 다시 팔도분도첩(八道分圖帖)을 올리니 또 이를 모사하여 홍문관과 비변사에 배치케 하였다. 이 때에 홍양한은 여지승람을 보완하기 위하여 팔도에 영을 내려 읍지(邑誌)를 올리게 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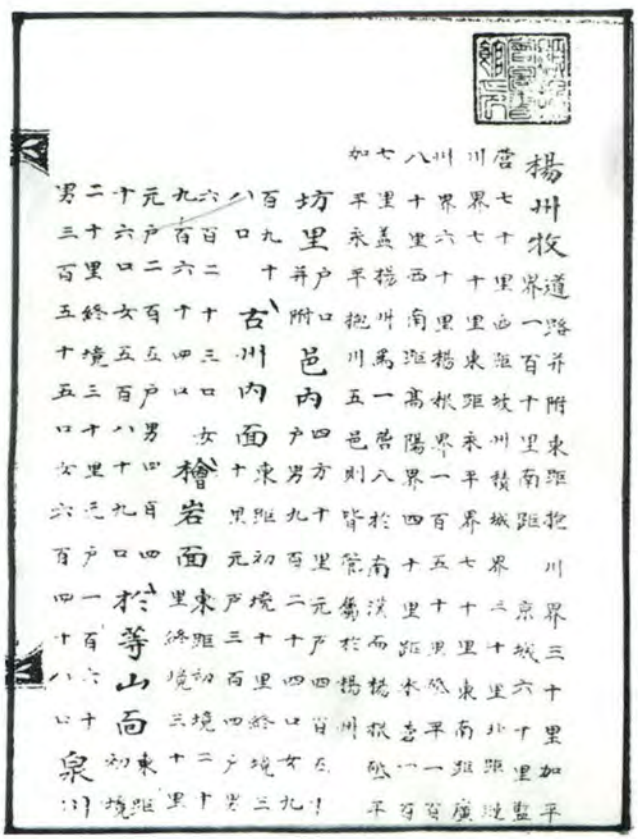
이것으로 보아 여지도서는 성종12년(1481)에 편성된 여지승람이 이미 2백 70년이 지나 개수 보완하고 지도를 삽입하여 여지도서를 만든 것이다.

여지도서 구성은 전 55책 이며, 경기도(책1~5) · 충청도(책6~13) · 강원도(책14~17) · 황해도(책18~21) · 평안도(책22~30) · 함경도(책31~35) · 경상도(책36~49) · 전라도(책50~55)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도의 구성은 각 도의 전도를 첫머리에 싣고 있으며 쌍엽채색지도1장(雙葉彩色地圖1張), 도총론(道總論)에 해당하는 부에서는 고금연혁과 군명(郡名)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 론에 해당하는 각 읍의 순은 감영을 필두로 진영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각개 읍지를 진영별로 정연하게 묶은 것은 아니다. 각 읍지의 분량의 다과에 따라 적의 배분해서 결책했다.

한편 각군읍(各郡邑)에 있어서도 첫머리에 쌍엽(雙葉)(1장)의 채색지도를 실은 다음 읍지를 싣고 있다. 그러므로 각읍지(各邑誌)는 명연한 개별 읍지를 이루게 된다. 여지도서의 편성동기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계승을 위해 기획되었던 만큼 두 책 사이의 편목상(編目上)의 큰 차이는 없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편목(編目)은 대체로 40여 항목인데, 그 순서와 배열에서 거의 일율적이다.





〈지도 6〉 여지도서

홍복산을, 누원은 호원동 다락원을, 용연은 홍복산 안에 있던 용못을 말한다. 여기서 불국산은 현재의 양주시에 있는 佛谷山을, 홍복산은 현재의 가능동 수원지에 있는 여지도서의 양주목지도에는 弘福山, 龍淵, 道峯山, 樓院, 佛國山 등의 지명이 보인다.

그 편목(編目)을 들어 보면, 강역(疆域) · 방리(坊里)(戶口 포함) · 도로(道路) · 건치연혁(建置沿革) · 군명(郡名) · 형승(形勝) · 성지(城池) · 관직(官職) · 산천(山川) · 성씨(姓氏) · 풍속(風俗) · 능침(陵寢)(墓) · 단묘(壇廟) · 공해公 · 제언(堤堰) · 창고(倉庫) · 물산(物産) · 교량(橋梁) · 역원(驛院) · 목장(牧場) · 관액(關阨) · 봉수(烽燧) · 누정(樓亭) · 사찰(寺刹) · 고적(古跡) · 진보(鎭堡) · 인물(人物) · 한전(旱田) · 진공(進貢) · 조조(糶糴) · 전세(田稅) · 대동(大同) · 봉표(俸標) · 군병(軍兵)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지승람과 다른 점은 방리(坊里)(호구(戶口) 및 편호(編戶) · 관아(官衙)까지의 거리) 제언, 전결, 부세, 학교(學校)의 항목과, 그리고 여지승람에 있는 시문이 많이 빠져있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비슷하나, 그래도 여지도서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보다 가장 상세하다. 여지도서의 양주목지도에는 홍복산(弘福山), 용연(龍淵), 도봉산(道峯山), 누원(樓院), 불국산(佛國山) 등의 지명이 보인다. 여기서 불국산은 현재의 양주시에 있는 佛谷山을, 홍복산은 현재의 가능동 수원지에 있는 홍복산을, 누원은 호원동 다락원을, 용연은 홍복산 안에 있던 용못을 말한다.

〈표〉 여지도서 · 여지승람 · 세종실록지리지 비교

項目	輿地圖書	輿地勝覽	世宗實錄地理志
坊里(面)	坊里(面)와 官衙와의 距離	없음	없음
	戶口(編戶 · 男女別)	없음	호구(총수만 기록)
堤堰	대소제언 망라함	고적에 속하는 몇개만 기록하였음	대제만 기록함
田結	旱田(始起年)	없음	간전으로 (旱田·水田구별)기록
	水田(始起年)	없음	土貢
進貢	品名表示	없음	없음
糶糴	있음	없음	없음
田稅	있음	없음	없음
大同	있음	없음	없음
物稅	있음	없음	없음
俸標	있음	없음	없음
軍兵	군정 수 및 배치	없음	있음
	軍備(軍器)	없음	없음
	組織	없음	없음
學校	많지 않음	기록이 많음	극히 적음

Ⅳ. 도 별 지도에 나타난 의정부

(1) 팔도지도의 의정부

18세기에 제작된 지본채색(紙本彩色) 지도로 52×48cm크기의 지도이다.

《팔도지도》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순서로 되어 있고, 지도의 크기도 각 도 별 크기에 따라 달라 일정한 축척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상기에 의해 지도제작에 사용된 백리척(百里尺)이 이 지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도의 배면에는 각 도별로 약자를 적어 넣어 지도를 펼치지 않고도 어느 도의 지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지도는 팔도지도첩의 제 1면에 실려있는 지도로 경기도의 군현, 산천, 도로, 역원, 능묘, 고개, 창고, 나루, 봉화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군현은 원을 그리고 그 안을 붉게 채색하여 위치를 표시한 후 군현명을 병기하였고, 군현간의 도로는 붉은 선을 그어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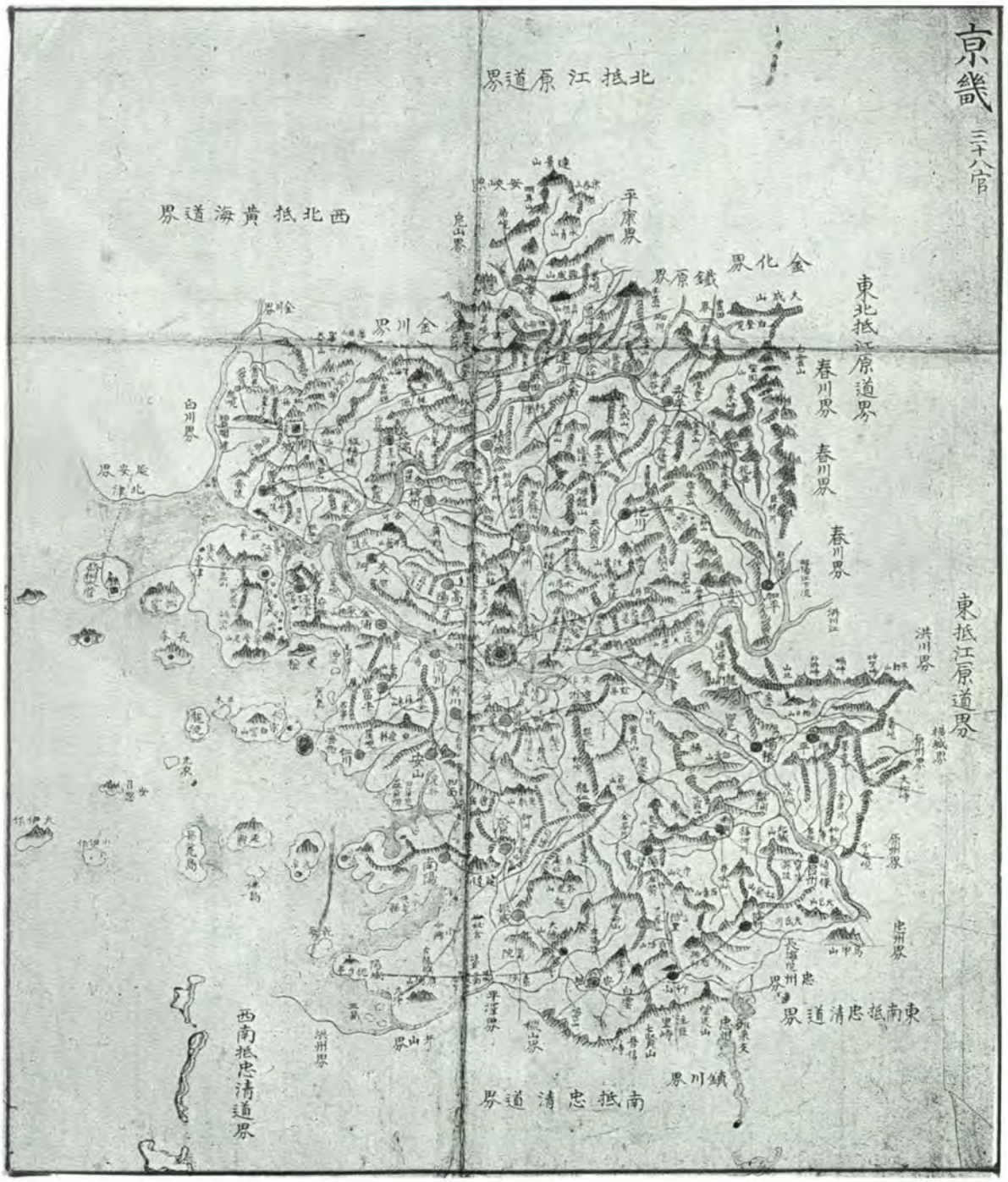
도로에는 도진(渡津)과 역원(驛院), 고개 등도 더불어 표시되었다. 산과 산맥은 톱니모양으로 산줄기를 이어 그리거나 독립적으로 먹으로 그린 후에 옆에 산명(山名)을 기록하였고, 청록색으로 채색하여 표시하였다. 서울과 그 주변의 다른 군현들은 붉은 원으로 치소(治所)의 위치를 표시했으나, 광주(廣州)는 지명만이 있고 치소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채 누락되었다.

서울과 주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왕릉의 소재도 정확하게 표시 되었는데, 경종의 능과 현재 구리시에 소재한 동구능이 육능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조의 능인 원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가 18세기 英祖代에 제작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팔도지도에는 수락산(水落山), 녹양(綠楊), 벽석령(壁石嶺), 홍복(弘福), 도봉산(道峯山) 등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다른 사항은 이미 밝힌 바와 같지만 축석령 고개를 벽석령 고개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석령 고개는 지금 의정부시 자일동과 포천시의 경계에 있는 유명한 고개이다. 현재의 포천가는 길목에 있는 축석령 고개는 옛날에는 벽석령 고개라고 불렀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주목 산수(山水) 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축석령고운벽석령동이십오리포천로(祝石嶺古云碧石嶺東二十五里 抱川路)』 즉, "축석령은 옛부터 벽석령으로 전해 오는데 양주 관아 동쪽 25리 지점 포천가는 길에 있다"라는 말이다. 이것으로 보아 현 축석령고개의 원래 이름은 벽석령임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현 축석령고개의 원래 이름은 벽석령임을 알 수 있다.
『祝石嶺古云碧石嶺東二十五里 抱川路』라는 기록이 있다.
김정호의 大東地志, 양주목 山水조에 보면



〈지도 7〉 팔도지도의 경기도편

(2) 좌해도 경기도 편에 나타난 의정부

좌해도(左海圖)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반에 유행했던 지본채색(紙本彩色)지도로 도별로 된 지도첩 형태를 띤 지도이다.

각 군현의 이름을 붉은 색의 둥근 원안에 기입 했으며, 군현명 우측에 서울 한양으로 부터의 일정을 기록했다. 즉, 양주(楊州) 오른쪽에 '반(半)', 이천(利川) 오른쪽에 '二'라고 기록한 것은 서울에서 양주까지는 반나절, 이천까지는 이틀 걸린다는 뜻이다. 거리 표시 방법은 '절대거리'와 '시간거리' 표시 방법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를 지도상에 표시한 곳이 많다.

군현명 좌측에는 군현의 품계를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는 도 아래의 부(府) · 목(牧) · 군(郡) · 현(縣)이 있었으며, 부와 목에는 종3품 부사와 목사가, 군에는 종4품 군수가 파견되었다. 현(縣)에는 종5품 현령(縣令)이 파견되는 고을과 종6품 현감(縣監)이 파견되는 고을이 있었다. 그러므로 각 군현의 품계에 따라 '부(府)', '목(牧)', '군(郡)', '영(令)', '감(監)' 등의 이름을 써서 군현의 위계를 표시하였다. 군현 사이의 도로를 직선으로 표시하고, 도로 위에 군현간의 거리를 기록하였다. 즉, 양주(楊州) 옆에는 '목(牧)'으로 표현했다.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지리 정보 지식이 많아지면서 명승지에 대한 유람이 증가하고 상업발달로 물자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각 군현의 지역에 대한 거리와 특산물 등 산업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의 의정부 지역 관내에 해당되는 내용은 불곡산(佛谷山), 수락산(水落山) 등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다. 지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양주까지는 56리, 양주에서 포천까지는 50리에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랑천이 지도상에 한강에 유입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 8〉 좌해도의 경기도편

(3) 여지총도 경기도 지도속의 의정부

18세기에 제작된 지본채색(紙本彩色) 지도로 31.9×38cm의 지도이다. 여지총도 가운데 경기도 지도이다. '경도(京都)'로 연결되는 각 각 지방의 군현과 주요 산악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양주(楊州) 명칭 옆에 '반목(半牧)'이라고 쓰여져 있어 양주목과 서울에서의 반나절 거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양주 주위산으로는 감악(紺岳), 소요(逍遙), 삼각(三角), 주엽(注葉), 천보산(天寶山) 등의 명칭이 보이지만 아쉽게도 도봉산 산명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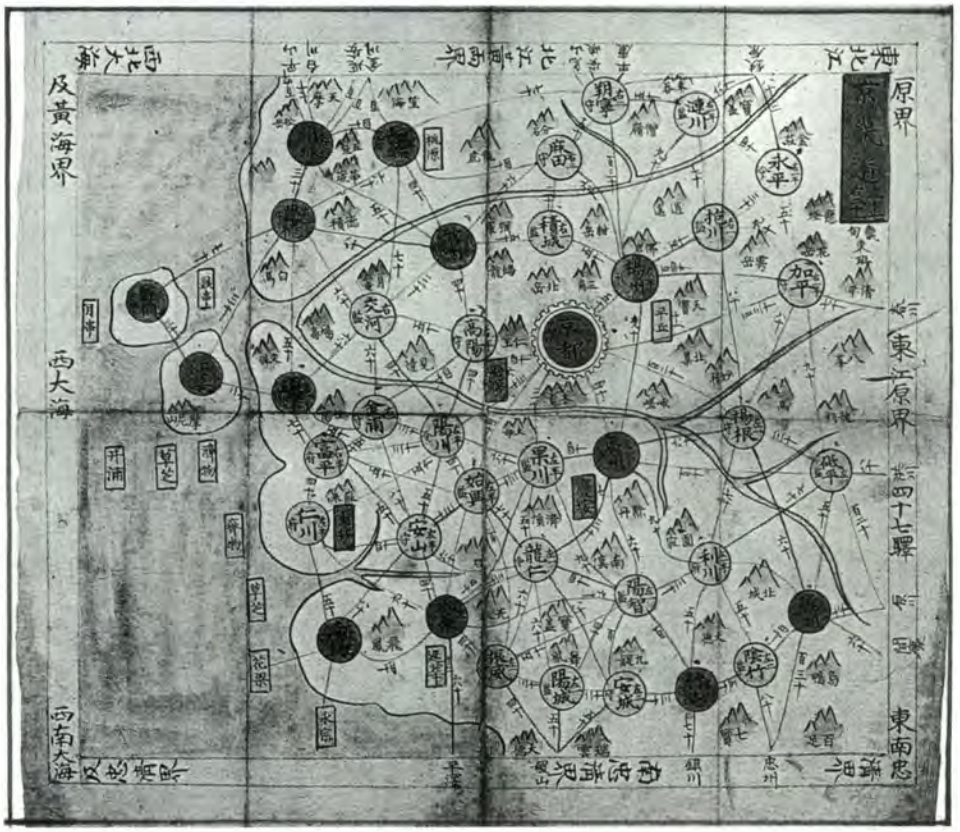
〈지도 9〉 여지총도의 경기도편

나타내고 있다. 주위산으로는 紺岳, 逍遙, 三角, 注葉, 天寶山 등의 명칭이 보인다. 楊州 옆에 '半牧'이라고 쓰여져 있어 양주목과 서울에서의 반나절 거리임을

(4) 천하총도 경기도 지도속의 의정부

천하총도(天下摠圖)는 1822년 이후에 제작된 지본채색(紙本彩色) 지도로 조선팔도가 수록된 지도책이다. 이 지도는 매장의 지도를 상하 2절 좌우 4절로 접어 길이 약 17cm, 너비 약 9cm의 수진본(袖珍本)지도 형태로 만들었다. 수진본 지도는 "소매속에 넣어 다니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이 당시 지도가 보물처럼 귀중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진본 지도는 간편하게 소매속에 넣고 다니던 수첩형태의 지도이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군현간거리, 도로망, 일정, 군현의 품계, 진(鎭), 역(驛) 등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주지역을 살펴보면 '목'으로 경도(京都)에서 반나절이 걸린다는 표시로 '목(牧), 우반(右半)' 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밖에 양주에서 적성(積城), 마전(麻田), 구천(狗川), 경경(京京), 가평(加平) 등 간 군현간의 직선거리가 리수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10〉 천하총도의 경기도편

V. 결론 : 대지에 사는 인간의 족적

지도는 인간의 역사이자 인간의 공통의 언어이다. 대지에 살고있는 인간의 족적을 담은 지도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인간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한 장의 옛 지도에서 당시의 문화유산, 측량기술, 산하의 모습, 도로 등 다양한 지적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터와 구획경계와 어떤 장소를 안내하는 길잡이로 그려진 땅의 그림이기 때문에 지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기에 중요하다.

옛 사람들은 땅에 음양과 오행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라 땅이 살아 있다고 보아 그 생명체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래서 방위에 따라 오행의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산과 강은 뼈와 혈관으로 이해하여 그 맥(脈)을 강조하여 그렸다.

우리가 옛 지도를 볼 때 땅에 대한 애정이 솟구치는 것은 땅이 생명체로서 살아서 약동하여 그 기운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지도들은 회화식으로 그려져 채색이 잘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워 예술성이 뛰어나며 아울러 사실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옛 지도는 상지관은 지역의 풍수성을 조사하고, 여지가는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화원은 그림처럼 지도를 그리고, 산사는 거리를 계산해 내는 등 전문가 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합작으로 지도를 협업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는 요즈음 말로 여지가, 화원, 산사, 상지관 등이 한 팀을 구성해서 산지를 시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나타내었다.

옛 지도는 일차적으로 국방과 행정의 기본자료가 된다. 우수한 옛 지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과 행정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규장각은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로 2백20여종 6천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옛 지도가 있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 도서관, 영남대 박물관, 성신여대 박물관, 숭실대학 박물관, 국립지리원, 서울 역사박물관 등에 옛 지도가 상당수 남아있다.

지도 문화 유산이 이렇듯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실상을 거의 모르고 있다. 옛 지도의 원본에 대한 접근이 힘들고, 칼러 지도의 영인도 비용상 비싸고 해서 옛 지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옛지도는 천하도(天下圖), 전국도(全國圖), 도별도(道別圖), 군현도(郡縣圖)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치있는 것이 군현도이다. 이 군현도는 양주, 파주, 과천 등 각 지방 군현 단위로 지도가 그려져 있어 지리적 내용이 상세하고 역사적 사실이 많이 부기되



의정부의 옛 지도는 의정부의 옛 모습을 비추어주는 종합적인 도서관이다.
옛 지도는 지역이라는 박물관의 한 단면을 그려 놓은 조감도이다.

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72년(고종8) 제작된 군현도는 전국에 걸쳐 4백59매라는 방대한 지도를 만들었으며 내용도 읍성을 중심으로 관아의 배치, 도로, 하천, 포구, 산악, 우물, 연못, 자연형세, 사찰, 시장, 사창(社倉), 봉수, 읍수(邑藪) 등 각종 시설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 지방사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지도는 지역공간 현상의 투영일뿐 아니라 역사, 문화, 지리, 사회, 자연현상 등이 각인(刻印)된 그림이며 정보매체물이다. 사람들의 생활무대인 지역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며 새로운 현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그 중에서 어떤 현상들은 역사책으로 혹은 지도나 사진, 유물, 지명 등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옛 지도는 지역이라는 박물관의 한 단면을 그려 놓은 조감도이다. 따라서 의정부의 옛 지도는 의정부 지역의 옛 모습을 비추어주는 종합적인 도서관이다. 특히 다양한 지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의정부 지역의 변천과정을 손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정부 옛지도를 분석해서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축석령고개의 원이름은 벽석령고개이다.

둘째, 중랑천의 원이름은 청랑천, 독두천이다.

셋째, 울대고개의 원이름은 울치(울고개)이다.

넷째, 비석거리를 한글로 비성거리라 하고 한자로 비우(碑偶)라고 쓰는데 이것은 일제가 만든 것이고 원래는 비석거리(碑立街)이다.

다섯째, 홍복산은 옛날부터 특수한 천연적인 원형지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안에 용연(龍淵-용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홍복산(弘福山)은 홍복산(洪福山)으로 혼용해서 옛날에 쓴적이 있다.

여섯째, 의정부시의 전신인 시북면과 둔야면에 각각 社倉이 있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의 문화재인 옛 지도를 아끼고 가꾸는 사업을 벌였으면 한다. 즉, 옛 지도를 고장별로 영인하여 보급함으로서 자기 고장의 옛 모습을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실경산수화처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나아가서 그 옛 지도 속에서 선조들 땅에 대한 유기체적 역사관, 유물관 등의 숨어있는 숨결도 느꼈으면 한다.

제18회 회룡문화제

2003. 10. 7 ~ 10. 12





이 글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시승격 40주년 기념 및 제18회 회룡문화제 기간 열렸던 행사를, 시청 자원봉사자 「e-아름다운 세상」 집필팀이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 수고해준 팀원 여러분들과 특히 사진을 담당했던 정민순 회장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편집부〉

제18회 회룡문화제

The 18th Hoeryong Cultural For Citizen












우표 전시회

2003년 10월 7일 오전 11시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 전시실 앞에서, 의정부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간 시민의 축제인 제18회 회룡문화제를 알리는 테-프 컷팅이 있었다.

이어 둘러본 전시실에는 의정부 우체국에서 준비한 우표전시회가 의정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우체국의 역사는 1백20여년 전인 1884년 우정총국을 시작으로 해서 1895년 농상공부통신국의 우체사, 1905년 우편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48년 체신부의 우체국에서, 1995년부터는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e-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서 그다지 우표를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설명하자면, 우표란 우편요금을 낸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證票)이다. 보내려는 우편물이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의 우표 값을 지불해야 한다. 문득 요즘 기본규격편지 한 통을 붙이려면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할까. 필자도 편지를 써 본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알아봤더니 190원이란다.

예전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숙제로 우표수집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그 우표집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어린시절을 생각해 본다. 특별하게 준비된 우표전시장 안의 모습을 소개한다.

"이건 점자 우표야! 이리 와 봐"

"여기! 우표도 있어"

'전시회'하면 조용하고 딱딱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이곳은 축제 분위기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의 손목을 다정히 잡고 온 어머니, 남학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중학교 남자 선생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빠 등 전시장 안이 붐빈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특히 학생들의 엽서가 눈에 띄었다. 부용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발곡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엽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인쇄한 엽서들이 많았다.

이번 전시회는 스포츠, 우주개발, 역사, 음악, 공룡 등 테마별로 나누어 전시했다. 그리고 잘라 쓰는 우표, 점자우표, 파열되는 우표, 플라스틱우표, 레코드우표, 순금우표, 알루미늄엽서 등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또한 아이의 돌 때부터 찍은 성장기 사진우표도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북한의 입체엽서였다.

발곡초등학교 4학년(남) 이주호는 "테마

별로 볼 수 있고, 색다른 우표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2학년(여)이예림, 1학년(여) 박예현은 "우표 꾸미기가 너무 좋았어요"라고 했다.

한편, 건너편 전시실에는 〈우리 종이 공예전〉을 전시한다. 이제는 닥종이 공예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인지 친근감이 있다. 닥종이로 만든 작품의 모습도 우리가 예전에 겪었음직한 상황을 재현한 모습이라 더욱 그러했다. 전시장 벽에는 문화원 문화학교 학생들과 〈미술동아리〉가 출품한 그림들이 보기 좋게 붙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문화학교 출신 미술동아리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감상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천연염색

지난 10월 11일, 모처럼 주말을 맞아 날씨까지 청명하였다.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듯, 가족동반 관람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한쪽에는 자연을 닮은 옷들이 다소곳이 사람들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쪽에는 개량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도우미들이 천연염색 실습을 도와주고 있었다. 천연염색 재료로는 황토, 머드, 갈토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이소영(7세, 새시대유치원), 이규환(서초등 3년) 남매는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늬를 만들기 위해 끈으로 손수건을 묶어 주었다. 아이들은 황토, 머드 등이 담겨 있는 함지박에 손을 넣고 무명손수건을 주물럭거리며 연신 싱글벙글이다. 10분쯤 지나자 아이들은 좀 힘들고 지루해졌는지 "언제까지 해야 해요?"하며 손놀림이 다소 느려졌다.



도우미 선생님은 "조물락조물락 많이 만져줘야 물이 골고루 예쁘게 든단다."며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20분쯤 지나 아이들은 맑은 물로 옮겨 몇 번 헹구었다. 그리고 꼭 짜서 탁 펼치는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는 "야!" 하는 탄성이 흘러 나왔다. 끈으로 묶였던 부분은 염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훌륭한 문양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아이들은 햇볕 좋은 곳에 자신의 작품을 널며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야외에서 있었던 천연염색 전시회는 하루 1백여 명의 발길을 붙들고 의정부 시민들에게 천연염색의 아름다움과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 일깨워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시민의 날 전야제

가을 밤 하늘을 수놓으며 시민들과 함께 한 감동 있는 음악회가 10월 9일(목) 오후 7시에 의정부 시청 앞 잔디광장 상설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1, 2부 나누어 2시간 동안 진행된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 예술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40만 의정부 시민의 정서와 감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이날 전야제 행사는 회룡이 상징하는 만남의 장, 화합의 장을 표현하고, 예술행사와 참여 행사를 비롯해, 볼거리와 배울거리 등 다채롭고 특색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였다.

1부 황희정 씨 사회로 이루어진 '의정부 윈드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익살스러운 트롬본 앙상블도 함께 이어졌고, 의정부 글로리아 어린이 합창단의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천사의 마음으로 다가왔다. 알바마의 서곡을 끝으로 감미로운 클래식 연주는 1부 막을 내리고, 2부 순서는 퓨전 예술이 가득한 사랑의 음악축제로 이어졌다. 김용운, 정소희의 '만담', '용맹과 기상의 무림', '화랑의 춤'과 대중가수인 임주리의 공연이 이어졌고, 특히 두드락의 리듬과 댄스파노라마는 신명과 온 열정을 쏟아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가족들과 공연을 관람하게 된 장암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김미숙(43세) 씨는 "훌륭한 음악회를 가족들과 볼 수 있어 흡족하다"고 웃으면서 말하며 "이런 공연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섞인 말을 전한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 수준 있는 의정부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대중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급문화인 클래식음악도 자주 관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공연은 '의정부 시승격 40주년 전야제'인 만큼 의미 있는 음악회로 다가왔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라는 기치 아래 제 32회 의정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동대항 체육대회가 10월 10일(금)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의정부시는 1971년부터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와 함께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다. 의정부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과 수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석해 시민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먼저 식전행사로 30여분에 걸쳐 26사단 군악대의 축하연주

가 흥을 돋구는 가운데 내빈소개, 고적대, 선수단입장, 국민의례, 시민헌장낭독, 문화상 및 경기도민상 시상, 기념사, 내빈축사, 시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동두천정보산업고 고적대를 선두로 한 선수단의 입장식에서는 각 동별로 노란우산, 풍선 등의 소품을 이용하거나 품바, 풍물패, 에어로빅팀을 앞세워 화려하면서도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선수단의 열의가 인상적이었다.

호원 2동이 입장상을 받은 가운데, 이어서 동대항 체육대회 개최식과 공개행사가 이루어졌다. 체육경기는 축구, 족구, 게이트볼, 육상, 협동줄다리기,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한마음달리기(내빈경기), 400m이어달리기(친선경기) 등 9종목으로 진행되었다. 15개 동 중에서 9동이 각 종목별 1등을 나눠 가졌다.

이날 체육경기에 직접 참가한 오정란(40) 씨는 "적지 않은 나이에 동을 대표하여 육상경기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하면서 "직접 참여해 보니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고 생활의 활기도 얻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렇듯 각 동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경기에 직접 참여하거나 열띤 응원 속에서 함께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시민의 날을 경축하는 축하비행이 종합운동장 상공에서 2차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출전 선수들간의 치열한 경쟁 못지않게 경기 내내 동별 응원전이 화려하게 펼쳐져 선수들의 사기를 돋구웠다. 동 선수단 출전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동별로 선수 유니폼, 주민식사준비, 응원준비물, 주민응원복 등이 마련되어 다른 동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며 응원전은 동민화합의 장이 되었다. 때로는 경기진행에 방해를 줄 정도로 앰프소리 크게 켜가며 목청을 올려 힘껏 응원하는 바람에 경기 진행자들이 애를 먹기도 하였다. 동별 응원경쟁에서 응원상은 호원1동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40만 의정부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유은진(61) 씨는 "시민의 날 축제가 우리 동에서 열리는 데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주민들 앞으로 제공되는 응원복도 일부만 받아 함께 자리하려니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해, 축제의 장이 되야 할 체육대회가 홍보 미흡과 일부 주민의 소외감으로 자칫 참 의미를 잃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미비점 보충으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즐겁게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며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왕실 행차 재현

지난 10월 12일(일) 시민문화 대축제의 하나인 '조선 왕실 행차'가 있었다. 이 '왕실행차' 재현은 조선건국 초기의 정신을 이어 받고자 태조와 태종의 어가 행렬로 구성된 것이다. 이 왕실 행차 재현의 의미는 옛날 임금이 사냥하는 일에 공식적인 강무(講武)와 사사로운 행행(行幸)이 있었는데, 강무는 춘추로 행하도록 규례화되어 있었지만, 국왕의 성정과 취미에 따라 가감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무인(武人)의 기질인 호협한 기품을 가진 태조와 태종이 단연 사냥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임금의 사냥과 강무로 한성에서 가까운 우리 지역이 그 적격지로 고정되어 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왕실행차'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태조와 신의왕후, 태종과 원경왕후의 역을 선발해 어가 행렬이 준비되었다. 왕실행차는 좌우 말 위에 앉은 늠름한 장수들의 진두지휘 아래 취타대, 가무악 행렬, 문무백관, 태조, 태종, 신의왕후, 원경왕후 등이 전통의상으로 분하고, 5백50여명의 대대적인 인원이 동원되어 경의초등학교를 출발하여 의정부역, 중앙로, 파발로타리, 경찰서로타리, 의정부역지하차도를 거쳐 시청앞까지 진행되었다.

진행 도중에 모든 행렬이 잠시 멈춘 채로 왕실행차 맞이 회룡마당극이 있었는데, 조선 건국 초 어려운 나라살림과 태조와 태종 두 왕의 대립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단하고 곤궁한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의 시대상과 대비되었던 이 마당극은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멎게 하고 관심을 모았다.

2시간 이상 걸린 길고 웅장한 행사여서인지 중간 중간에서 조금은 피곤하여 지친 듯한 모습의 행렬에서 이탈된 몇몇 참가자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띈다. 행선지를 출발 할 때의 정돈된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행사 날의 푸르고도 높은 가을 하늘의 기상이 이 행사를 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우리 의정부의 미래까지 밝아지길 기원해 본다.



식전 합창공연과 개막식

개막식 바로 전에 출연한 의정부시 소년, 소녀합창단의 노래는 천상의 소리 그 자체였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질서정연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참으로 고와 보였다. 분위기를 띄우느라 준비한 비누방울이 무대 위에 가득히 날아다니는 모습은 꿈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하기에 충분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개막식은 의정부 각계인사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원 시장과 김태훈 문화원장의 타고를 시작으로 행해졌다.

문화원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의정부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18회 회룡문화제를 개최하게 됨에 시민 문화 축제 주최자로서 벅찬 감격과 더불어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회룡문화제를 통해 전통 속에 새로운 '문화 창조'라는 의식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알차고 뜻 깊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우리 40만 시민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20세기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면, 21세기는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문화적 욕구가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어 문화의 질에 따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는 한편,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정체성의 표현이 되며 건전한 정신문화는 수준 높은 문화 창조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18회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요, 문화시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내 고장 역사 속에서 조상들과 끈끈한 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의정부문화원은 의정부시민들과 더불어 우리 선조들의 웅건하고 섬세한 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 문화 속에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현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끝맺음 하였다.







마당극 '회룡의 하늘'

'이성계가 왕이 되어 돌아왔다'는 회룡의 역사적 의미를 소재로한 마당극 '회룡의 하늘'은 그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또다시 "백성이 곧 하늘이니 윤허하소서" 쩌렁쩌렁 하늘에 닿을 듯한 울림이 마당극의 시작을 알렸다.

일반 마당극과는 거리가 멀 듯한 '랩'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치풍자소리가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한편 전혀 다른 신선감도 느낄 수 있었다.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며 뛰어 다닐 때는 특히 어린이들의 신나는 함성이 이어졌다. 뭘까? 궁금해 하는 관객들에게 "엿 먹어라, 용용 죽겠지"라며 나누어 준 것이 엿이라고 할 때에는 한바탕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활짝 웃는 시민에게 소감을 묻자 "랩을 좋아하는 아들이 따라서 흥얼거리며 즐거워 하니 아빠 노릇 잘한 저녁인가보다. 그리고 자칫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극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한층 가까이 접하게 된 계기였다."라며 마당극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마당극의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태조 이성계가 창업을 할 때에 방원이 큰 공을 세웠으나 계비 강씨의 소생 방석이 세자로 봉해졌다. 방원은 이에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 태종으로 등극하였으며, 태조는 크게 노하여 함흥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다. 태종은 아버지의 노한 마음을 돌리려고 수없이 사신(함흥차사)을 보냈으나 모두 죽어서 돌아왔다. '어제는 이성계의 백성, 오늘은 이방원의 백성, 내일은 누구의 백성' 이냐며 외치는 소리가 무대 가득 울려 퍼졌다. 어려운 나라 살림과 두 왕의 대립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단하고 곤궁한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의 시대상과 대비시켜 한층 재미가 더 해졌다. 평범하지 않은 외모의 무학대사가 등장하고, 극은 절정에 이르러 태조와 태종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둘의 만남을 청룡과 황룡으로 상징화하고 무대 중앙에 걸려있던 '지도'는 어느새 호랑이로 바뀌었으며 무대 가득 꽃가루가 휘날리고 있다. 웅장한 오페라의 막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이 황홀하다.

또한 마당극을 시작할 때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불꽃에 불을 붙이게 하였다. "용과 호랑이를 위하여"를 외치며 모두 높이 들어 올린 불꽃이 타오르니 처음의 웃음과 대비







되어 자못 숙연해진 분위기다. 회룡의 의미와 지명 유래를 오늘에 맞게 해석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 제작진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듯 하다.

이범진(남, 21) 씨는 "항상 느끼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아쉽고, 풍물거리 등의 혼잡한 주변환경이 집중을 방해한다. 하지만 보기만 하던 것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끈 연출은 돋보였다"며 꼬집는 한 마디도 잊지 않는다.

김미란(34세, 여)씨는 "주변에서 터트리는 폭죽의 소음은 시민 스스로가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없음이 아쉽다. 하지만 볼거리가 있는 의정부가 자랑스럽고 많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며, 다음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이 훨씬 정겨운 느낌이다.

무용 '회룡의 아침'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30분 시청앞 야외무대에서 '회룡의 아침' 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무용협회가 주관한 무용공연이 30분간 있었다.

시 승격 40년을 기념하는 의정부 시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회룡문화제축제 한마당으로 오늘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쌀쌀한 날씨지만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가득하여, 부채로 커다란 꽃송이가 개화될 때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족과 함께 나온 의정부2동에 사는 주부 권혜경(34) 씨는 "의정부에서 10년 살면서 오늘 처음 회룡문화제에 참관하는데, 문화행사에 목말라 하는 시민에게 참 멋진 공연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즐거웠어요" 하면서 이틀전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못보고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야외 공연으로 관중들의 이동이 많은 것이 흠이지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은 커다란 장점으로 보였다. 불경기로 가슴 답답한 시민들의 시름을 커다란 북소리로 날려 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공연 끝까지 함께 자리한 김문원 시장의 모습도 달리 보였다. 18회를 맞이한 회룡문화제가 더욱 풍성한 시민들의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란다.

국악의 향연

오전에 맑았던 날씨가 오후가 되면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예정된 공연은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객들도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공연시작을 기다린다. 드디어 5시가 되자 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 황석자 이수자가 인사말을 하고 난 후에 민요공연이 시작되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국악인 50여명이 번갈아 무대에 나와서 열심히 민요를 부른다. 중간에 반주를 하던 남자분이 피리를 부는데 곡목은'돌아와요 부산항에','데니보이' 등 귀에 익숙한 곡이라 저절로 흥얼거리게 됐다. 무대 사회자로 나온 홍정덕 씨가 곡이 바뀔 때마다 해당 민요에 대한 부연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어서 한결 좋았다. 비오는 가을날에 가랑비 맞으며 듣는 민요감상이라선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회룡문화제 축하공연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하는 경기방송 사회자의 멘트가 있자, "까~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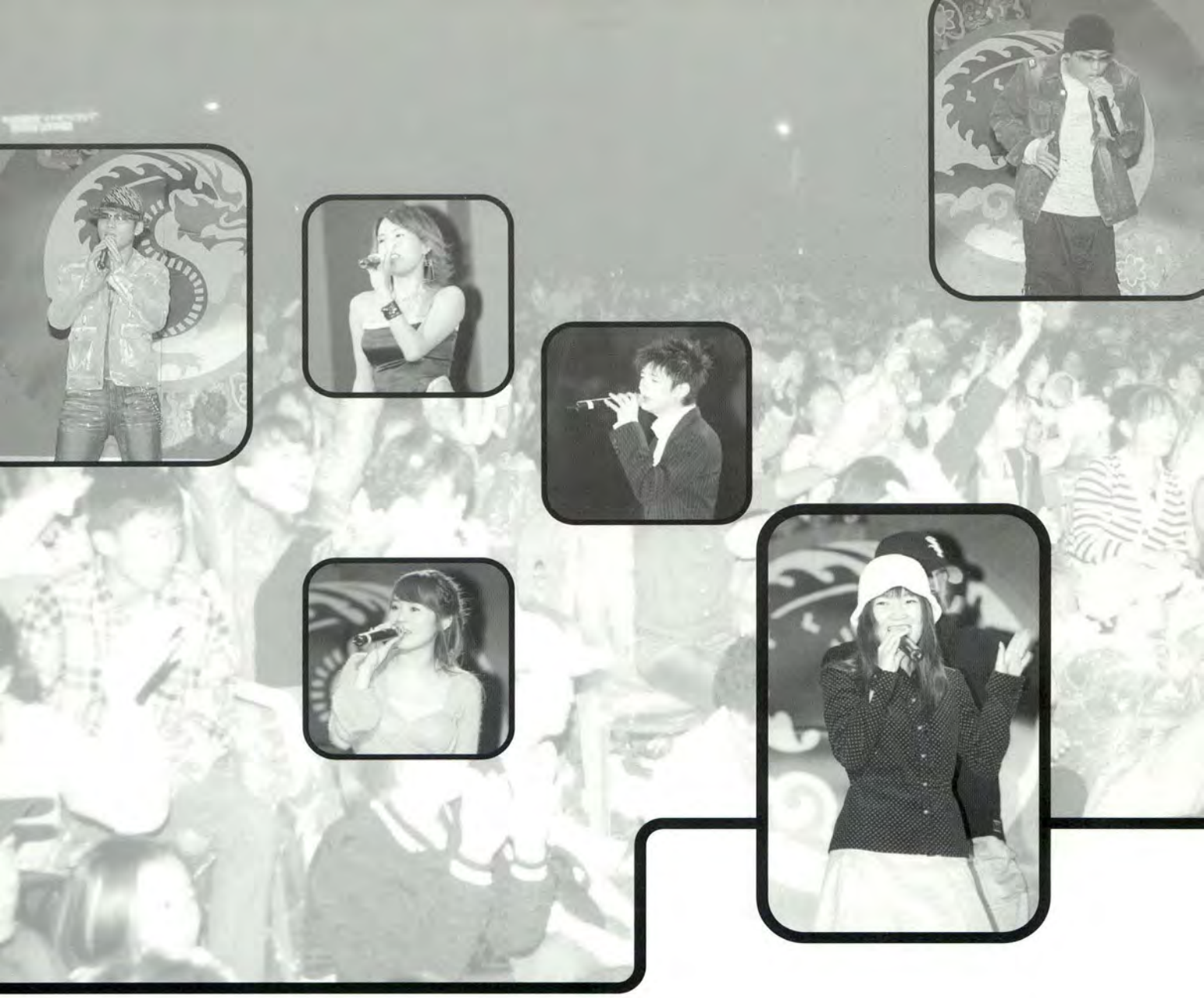
뒤이어 무대의 불꽃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TV에서만 보았던 가수가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폰을 찍는 학생들과 팬인 듯한 이들의 열광이 장관을 이루었다. 순식간에 시청 앞 광장은 젊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인기가수 이정, 원투, 자두, 채연, 이기찬 등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회룡제의 마무리에 확실하게 한 몫을 더했다.

의정부 문화원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를 많은 의정부시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 이서영(17), "극성 팬들의 고성에 분위기가 업(up) 된 것 같다."며 볼을 붉히는 최정원(24), "요즘 젊은이들의 자기 표현력에 감탄하겠군요." 전직 교사인 장소선(44), "마음이 젊으니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흐뭇해 하던 정영수(남) 등 가수들의 눈빛, 손짓하나에 환호성을 자아냈던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았던 공연이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김문원 의정부 시장도 시민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발적이고 관심 있는 참여가 더욱 돋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젊은이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을 위해 균형을 맞춰 트롯가수들도 초청해서 흘러간 노래라도 따라 부르게 하였으면 더욱 흥겨운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 행사를 끝으로 6일간 열린 제18회 회룡 문화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남은 여생, 한방(漢方) 이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최영희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의정부1동에 소재한 소강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약 냄새가 자욱한데 실내가 조용하다.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내장식이 여느 한의원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시 액자와 동양화 액자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걸려있는 것이 더욱 차분하게 느껴진다.

주인을 찾으니 조용하고 인자한 성품의 할아버지가 본인(신조현) 이라며 인사를 건넨다. 처음 인터뷰를 청했을 때는 "지역사회를 위해 한일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며 극구 사양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며 공손하게 설득해서 겨우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곳 소강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조현(申祖鉉, 68세)은 1961경부터 40여년째 한약방 일에 종사하고 있다. 원래 출생은 충청도 청주이지만 부친의 인연 따라 6 · 25 한국전쟁 이전부터 의정부에 다니러 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에서 일가를 이루어 생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용한 분위기의 신조현(68세)은 이어 "내가 의정부에 온지도 어언 50여년이 지났으니 제2의 고향이 됐지요"한다.

어떻게 이 일에 종사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부친이 하는 일을 곁에서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한다. 그래서 "소문에는 3대째 한약방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했더니, "의정부에서 3대가 한 것은





신조현 氏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6년간 중국을 다녀 중의대학 졸업과 중의사 자격을 획득하고 중국 침사시험(A급)도 합격하였으며 현재 대한침구사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였으며, 청와대 경호실장의 감사장도 수상하였다.





▲ 애꾸눈 명의(名醫)로 이름을 날린 부친(신영균)과 함께.

▲ 조부(신관희)님 서당훈장과 한약방 운영을 하셨다.

아니지만, 조부(祖父, 신관희) 때부터 한약방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라며 그의 특별한 가계(家繼) 내력을 들려준다. 얘기를 듣던 중 뜻밖에 부친(신영균)이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 여기에 소개한다.

"신조현의 부친 신영균(일명:신원균)은 1900년 10월 4일 충남 공주군 장기면 동현리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조부(신관희)에게 글을 배웠다. 그는 16세 때 이미 사서삼경(四書三經)과 한의서(漢醫書)를 통달하여 이 때 전통 유학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그는 1920년대부터 삼남지방을 돌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애국동지를 규합하여 군자금모금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일제경찰의 수배망을 피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하니 자연히 가세는 기울어갔다. 1926년 그는 마침 만주의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한민군(韓民軍)의 서울 연락책인 박길수를 만나 독립운동모금책에 임명되었다. 부친의 이러한 활동이 일본군에 노출되어 충남 공주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 두능리로 야반도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조부(申關熙)가 백천 조씨(白川趙氏) 집성촌에서 서당훈장(書堂訓長)과 한약방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1933년에 부친 신영균은 구사일생으로 두만강을 건너 용정(龍井) 한민군(韓民軍) 정보처 김천일에게 군자금을 전달하고 훈춘에서 한민군사령관 신산(일명 신동준)을 만난 다음 러시아지역인 연해주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그 후에도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탄광 등지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가 많았지만, 청년들을 모집하여 만주의 한민군에 입대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20여년간 항일운동을 하는 동안 부친은 본가(本家)가 이사하는 줄도 모를 정도였다. 귀가한 부친은 생계를 위하여 소작농사를 지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부친이 해방직후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된 후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중, 고향인 청주에서 어느날 우연찮게 서당시절 제자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의정부와 인연이 닿게 되었다고 한다.



그 제자 얘긴즉슨, 본인은 '의정부 조흥은행 후문 부근에 신명한약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병환이 위독하여 청주에 내려왔으며, 아무래도 다시 의정부에 가서 한약방·일을 볼 수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하심이 어떠냐'고….

「소강한약방」 신조현은 "한약방협회, 침구사(鍼灸師)협회 봉사단의 일원으로 시골 마을 등에는 침구사(鍼灸師)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많은 감사장을 받았지만, 의정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이렇다 할 봉사를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이다"라며 대단히 쑥스러워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고 기회가 있으면 남은 인생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생각입니다"라며 웃고 있는 그의 표정이 한없이 온화하다.

그래서 같이 의정부에 오게 되고, 그 제자가 단골고객들까지 소개해 주었다.

부친은 이 제자의 주선으로 양주군 의정부읍 조흥은행 후문 근처에서 신명한약방을 운영하던 중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오창면 성재리에 사시던 조부모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청주집을 정리하고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1950년 한국동란이 일어났고, 1·4후퇴 시 공주로 일시 피난 갔다가 수복 후 다시 의정부로 돌아와 한약방을 계속하였다.

의정부 일대에서는 애꾸눈 명의(名醫)로 이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유학자로 또는 항일운동자로서 민족과 나라사랑에 남달랐던 부친(신영균)은 결국 남북통일을 보지 못한 채 타향인 경기도 의정부의 셋집에서 1967년 6월 26일 향년 68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애를 마치었다"고 신조현은 술회한다.



또한 신조현은 전 건국대 사학과 교수였던 박영석(朴永錫)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구하던 항일투쟁사(박영석은 당시 중국 연변대(延邊大)와 복단대(復旦大) 명예·고문교수)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박영석 교수가 독립운동사 연구에 정열을 쏟아오면서 「해방이후 우리 역사는 독립 투쟁사 보다는 일제의 독립투쟁사를 중심으로 기술돼왔다」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된 독립투쟁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립유공자도 일제의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투옥자가 주 대상이 됐다」며,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발굴 작업이 시급하다」고 한국일보에 서술했던 기록들을 내밀면서 "박영석 교수가 지금은 건강이 악화돼 기록명부 확인 작업이 중단되어 안타깝다"며, "이 연구작업(당시 일본측 기록대장)이 마무리되면 독립유공자 후예임이 확실시 되고 가문(家門)에도 영광이 될 터인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의 성장과정을 묻자 신조현(68세)은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의정부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회고 한다.

당시 의정부는 현 의정부역 동부광장을



중심으로 조흥은행 후문쪽에서 현재의 상호저축은행(전 신천병원자리) 쪽이 가장 번잡한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대부분이 초가집 이었고 기와집이 몇 채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시장에는 대부분 지게에 땔나무(장작, 솔가쟁이)를 메고 나온 농부들의 땔나무시장이 형성되고, 인근 농촌지역의 농산물이 유통되었으며 공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제법 큰 장이 열리고 있었단다. 그러던 중 6 · 25 한국전쟁에 화약을 가득 싣고 의정부역에 정차하고 있던 인민군열차가 아군 B29기 폭격에 의하여 폭발하는 바람에 초가집들이 모두 전소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의정부는 수도 서울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서 최선의 방어전을 벌인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

폐허가 된 시가지에 미군부대를 비롯한 유엔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휴전 후에는 각종 미군부대가 자리 잡게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미군부대의 주둔과 아울러 그 특수를 노린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몰려들었다. 또한 이곳은 북한으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 왔다가 주저앉은 실향민들이 다른 곳 보다 많았다. 그래서 의정부는 원주민보다 외지인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당시 의정부3동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일강당 한약방의 일을 돕고 있던 신조현도 자연스럽게 한약방 일이 생업(生業)이 되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약방 제도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농 · 어촌 등 소도시에 시 · 도지사가 무의촌 해소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시험제도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부산 피난시절에 국회가 한의사법을 입법화한 후(당시 한의대는 동양한의대 뿐이었다), 점차 한의대가 증가하여 한의사 배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시골 마을에도 각 부락단위로 보건지소가 생겨나 무의촌은 차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3년 전국 각 시 · 도에서 한약방제도 시험을 실시한 것을 끝으로, 이 시험제도는 사문화된 법으로 변했다. 따라서 현재는 평균연령이 67세 가량의 노인들만 소수남아 한약방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신조현은 "한약방협회, 침구사(鍼灸師)협회 봉사단의 일원으로 시골 마을 등에는 침구사(鍼灸師)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많은 감사장을 받았지만, 의정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이렇다할 봉사를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이다"라며 대단히 쑥스러워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고 기회가 있으면 남은 인생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생각입니다"라며 웃고 있는 그의 표정이 한없이 온화하다.



전통음악의 진수를 계승 · 전수하는 경기소리 명창

"한계 없는 경지를 향해 평생을 정진한다."

국악보급과 연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석자 지부장. 그는 경기소리의 이수자로서 우리문화의 본질을 되살리려는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왔다. 우리것을 제대로 전승하여 우리의 본모습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황 지부장의 꿈이다.



글 · **안희정** 자유기고가

"우리 뿌리를 찾는다는 것, 역사와 연정이 깃들어있는 소리로 내 삶을 보여 준다는 것이 국악의 매력이죠. 특히 경기민요는 삶의 체온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아요"

단단한 자태와 나이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 있는 눈빛,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에서 30년 외길을 걸어온 전문소리꾼임을 짐작케 한다.

의정부 지역에서 국악의 보급과 생활화를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한국 국악협회 의정부지부 황석자 지부장은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31호 이수자다. 국가 지정 문화재에는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자, 전수생 등이 있는데 황 지부장은 4명의 이수자 중 한사람으로서 그의 소리의 경지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라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것을 의식해서 인지 항상 스



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다.

그럼에도 국악에 대해 전문학자 이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견해와 통찰력을 보면 그의 끝없는 노력과 성찰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국악, 특히 민속음악은 민중의 애환과 희망, 종교, 생활 등이 그 민족 특유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오랜 세월을 구음으로 전해진 우리의 삶의 표현이었던 만큼 민속악의 생활화는 바로 삶을 생동감 있는 것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민요는 민중의 생활

황 지부장은 '민중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중의 생활감정이 소박하게 담긴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는 민요의 사전적 의미 외에 "민요의 본래 속성에는 '민중의 생활'이라는 발생 소자(素子)를 텃밭으로 하여 이를 음률화하는 민중의 자유롭고도 제멋대로의 음소(音素)가 결합하고 있다"며 민요의 연희에는 반드시 민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민중의 애환과 노고와 감정에 대한 동의(同意), 동감(同感)이 없는 민요는 한낮 생명력 없는 가곡(歌曲)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민요를 혁명 도구화 하는 과정에서, 민요에 배어있는 민중의 흥과 설움을 제거해 버렸을 뿐아니라 고유의 탁성(濁聲)을 버린 채 정체 불명의 미성(美聲)을 정음(正音)으로 취하는 어리석음과 함께 서양식 음계를 차용한 어정쩡한 개량 악기들을 만들어 민중의 노래를 무대 연주곡으로 변질시켰다고 설명한다.

황 지부장은 또 "우리 민요의 본질을 왜곡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힘든 노동을 흥겨운 놀이로 엮어내던 민중의 가락과 흥을 박제화 된 무대 예술로 제한해 버려 민요의 본질적 구성요소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

과거 우리것은 무조건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



▲ 2001년 12월 21일 하남시에서 개최된 '하남시 국악협회 국악한마당'에서 민요를 열창하고 있다.





▲ 2003년 9월 29일 제10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 참가하여 명창부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되고 더욱이 소리는 천민들의 문화로 경원시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소리인들도 '명인', '명창'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된 만큼 잘못 인식되어온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삶의 변방에 방치 되어온 우리 문화와 예술이 이제 주역으로 등장하고 값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한편 논외에 방치하던 본질과 전통이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는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며, 황 지부장은 오랫동안 척박한 의정부 국악의 지평을 갈아오며 절실히 느꼈던 과제가 바로 "민요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수하는 일" 이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본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황 지부장은 그 첫째의 방법으로 '민요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앞으로 우리 향토의 향그러운 예혼을 가꾸어 갈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자각해야한다"며 우리의 삶이 전통의 울타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지 않은 만큼 민요를 만들고 불러온 선인들의 흥과 가락은 단지 잊혀져 있을 뿐 멸실된 것은 아니므로 이같이 앉아 있는 불씨를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과제이고 목표라고 한다.

우리 향토의 국악인들과 행정당국, 그리고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어른들이 먼저 민요를 배우고 부르면서 어린 세대에게 재미없고 따분한 것으로 인식된 우리민요의 흥겨움을 가르치고 민요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우리 민요의 싹은 다시 싱싱하게 피어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과감한 투자'로 어느 영역에서나 문화예술은 단기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긴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이를 가꾸어가야 하며 전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연 여건과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어 전통을 되살려 나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음성으로 부르는 소리에 매료돼…

황 지부장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조부께서 '니나니나'하고 장단을 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에 겨워하는가 하면 누가 노래를 시키면 서슴치 않고 노래를 부르곤 했다.

부친께서도 소리를 좋아하시어 틈틈이 비원 앞에 국악원에서 박귀희(가야금 병창 명인) 선생님에게 소리를 배우러 다니셨고, 그러한 집안 분위기로 소리에 대한 관심이 싹텄다.

그러나 공직자 이셨던 부친의 영향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그는 전문적으로 소리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고교 3학년 때에는 학교를 방문한 KBS합창단 단장이던 초등학교 시

소리는
한계가 없는 예술로 평생을 정진해야 한다.
겸손과 인내가 몸에 배이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감정표현이 풍부해지는 것은
소리의 가장 큰 장점이다.



▲ 2003년 제18회 회룡문화제 기간에 열렸던 「국악의 향연」에 참가하여 민요를 열창했다.

절 음악선생님의 눈에 띄게 되어 덕성여고 졸업 후에도 3년여간 단원생활을 했다.

고교 졸업 후 음악대학을 가려다가 "앞으로는 대학 졸업장보다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부친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직장생활을 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소리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여가 선용으로 서예, 꽃꽂이, 스포츠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

"KBS 소속 서울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던 중에도 문득문득 가성이 아닌 자연스런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소리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있던 중 아이들을 웬만큼 키워놓고 30대가 되어서야 소리를 시작했고, 40대에 본격적으로 매일 5~6시간씩 강훈을 하여 전문소리꾼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74년 '가요집성'의 저자인 인간문화재 명창 이창배 선생의 이수자인 명인 박태여 선생을 소개받아 경서도 민요를 사사받다가 '85년 인간문화재이며 무형문화재 제 57호인 묵계월 선생, 준 문화재(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1호 예능보유자)인 임정란 선생으로부터 사사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89년 임정란 선생의 추천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서울 개포 어머니회 민요강사를 계기로 민요 보급을 시작했다.

'92년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원 민속창 위원회 민요위원으로 위촉된 후 당시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던 친구 윤수자(현재 경기소리보존회 의정부지부장)씨를 만나 의정부에서 민속예술연구원(현재 한국국악원으로 개칭)을 개원,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악 등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교육과 보급 기관이 전무했던 의정부 지역의 국악발전을 위해 93년 3월 (사)국악협회 의정부지부를 창립, 적극적인 홍보와 매년 3회의 정기공연을 비롯,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개관 축하 공연, 2001이천 도자기엑스포 공연 등 설립 이후 지금까지 60여회 이상의 공연활동을 계속해 왔다.

국악협회 의정부지부에는 50여명의 회원들

문화예술단체 탐방 ‖ 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黃奭子 지부장



이 활동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의정부 한국 국악예술단'과 국악에 재능이 있는 12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백천청소년 예술단'이 있다. 황 지부장을 거쳐간 문하생들은 지금까지 1천여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각종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악예중고와 대학의 국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등 국악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부가 경기북부에서는 경서도 민요를 교육하는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청소년층 보급을 위해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 학생들이 공연하는 것을 직접 청소년들이 보게 함으로써 국악의 맛과 기풍에 쉽게 접근하여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같은 활발한 공연활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창립 이래 도지사 표창 등 지금까지 약 30건이 넘는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9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국국악 경연대회' 명창부 경기좌창부문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연이은 수상으로 황 지부장은 전문 소리인으로써 황금기를 맞고 있다.

경기소리, 서도소리, 선소리로 나뉘어 각 소리마다 좌창(명창부)과 민요(일반부)로 나누어 경합을 벌인 이 대회에서 황지부장은 경기좌창 12잡가 중 예선에서 소춘향가를, 본선에서는 유산가를 불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

"밖으로 드러내 보이고 평가받는 것을 싫어했으나 스승의 적극적인 권유로 매년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황 지부장은 "대회무대에 설 때마다 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앞으로 대통령상이 목표라고 한다.





국악협회 의정부지부에는 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의정부 한국 국악예술단'과 국악에 재능이 있는 12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백천청소년 예술단'이 있다. 황 지부장을 거쳐간 문하생들은 지금까지 1천여명이 넘는다.

평생을 정진해야…

"경기민요가 정작 경기지방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악보급에 열의가 있다고 해도 전수하는 과정에서 예인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와 자기개발의 신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는 한계가 없는 예술로 평생을 정진해야 한다"는 황 지부장은 "겸손과 인내가 몸에 배이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감정표현이 풍부해지는 것은 소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국악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없으면 전수하기 힘들지 모른다. 삼삼오오 짝을 지으면 춤과 가락이 절로 나오는 국악예술의 숨결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생활의 고통도, 연정의 표현도 말과 글보다는 소리로써 구수한 내음을 풍기며 표현하는 우리국악에 어찌 찬사를 하지 않겠는가.

과학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은 소음과 공해에 지쳐있다. 황석자 지부장의 국악에 대한 열정은 선조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악기와 소리로 한 어울이 되어 의정부를 흥겹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이끌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경기소리」란 무엇인가?

경기소리는 서울 · 경기지방에서 부르는 경기잡가와 경기민요 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으로 서도소리, 남도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음색이 맑고 깨끗하며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기소리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 12잡가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선유가, 평양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
- 산타령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산타령, 개고리타령
- 휘모리잡가
  만학천봉, 곰보타령, 병정타령, 육칠월,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생매잡이, 한잔부어라, 기생타령, 비단타령 등
- 잡잡가
  풍등가, 금강산타령, 장기타령, 국문뒤풀이, 장대장타령 등

잡가와 민요의 의미

잡가란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온 직업 예능인들의 노래로서 전문 소리꾼들이 긴 사설을 기교적인 음악어법으로 부르는 노래를 잡가라하여 이보다 단순한 아마추어들의 민요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민요는 별도의 전

승과정이 없이도 구전되지만 잡가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이어져오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판소리를 잡가라고 지칭한 기록(윤달선의 『광한루 악부』)도 보이고, 「춘면곡」, 「황계사」와 같은 가사를 잡가라 부른 기록(유만공의 『세시풍요』)도 있으며, 20세기 초에는 민요와 잡가의 구별없이 민요도 잡가라 하고 잡가를 민요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음악적 구조와 연주형태가 민요와 다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르로 나뉜다. 대개 민요는 후렴이 붙는 짧은 사설을 정해진 선율에 반복하는 유절 형태가 많은데 비하여 잡가는 긴 사설을 통절형태로 노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앉아서 노래할 때와 서서 노래할 때에 격식을 달리한다.

• 잡가
-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배워야만 부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진다.
- 독창으로 부르며 메기고 받는 형식이 없다.
- 긴사설의 가사에 따라 선율도 바뀌는 통절 형태

• 민요
- 별도의 전승과정 없이도 구전되어 누구나 부를 수 있다.
- 독창 또는 여럿이 부르며 메기고 받는 형식이 있다.
- 후렴이 붙는 짧은 사설을 정해진 선율에 반복하는 유절형태이다.

민요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과 사상 · 감정들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된 소리로써, 한 지방에 국한되어 불려지는 소박하고 향토적인 민요를 토속민요라 하여 통속민요가 생기기 이전의 민요라 할 수 있겠다. 이보다 널리 알려지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지방에서 고루 불려지는 대중적인 세련된 민요를 통속민요라 하는데, 통속민요의 역사는 전통적인 봉건질서 체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회 · 경제 ·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시기를 구한말 이후라 하겠으며 겨우 백 여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통속민요는 민요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불려진다.

• 토속민요
- 한지방에 국한된 소리(노동요, 상여소리)
-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다.

• 통속민요
-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알려진 소리 (예:창부타령, 한강수타령)
- 세련되고 음악적 기교가 많다.
- 직업적인 전문 소리꾼에 의해 불려진다.

또한 그 고장 특유의 가락으로 표현되는 민요는 그 지방만이 갖는 사투리와 말의 억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 서도민요(황해도, 평안도)
- 경기민요 (서울, 경기, 충청도 일부지방)
- 전라도 민요 (전라도 지역)
- 동부민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 제주도 민요 이상 5가지로 나뉜다.

경기잡가

• 경기잡가의 종류

경기잡가는 연주 형태에 따라 서서 부르는 입창과(立唱)과 앉아서 부르는 좌창(坐唱)으로 나뉘며, 입창은 선소리라는 별칭이 있고, 좌창은 경기 12잡가를 일컫는 말이기도하다.

• 경기 12잡가

경기 12잡가는 앉아서 부른다 하여 12좌창이라 하

며, 또한 서설이 길다는 의미인 긴 잡가라고도 한다.

가사 내용은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곡은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안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이다. 장단은 12가사와 같이 도드리 장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잡가가 18세기말엽 이후에 생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예전에 뚝섬패, 왕십리패 등으로 불리던 소리꾼들이 모이면 먼저 긴 잡가를 부른 다음 산타령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휘모리 잡가를 불렀다고 한다.

• 산타령

흔히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하듯이 서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이다. 장고를 멘 '모갑이'가 먼저 소리를 메기면 소고를 든 여러 명이 소리 받고, 돌아가면서 메기고 또 받는 형태로 연주하며 '놀양',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도라지타령)의 순서로 부른다.

가사내용은 산, 강, 절 등 자연을 읊은 것인데, 놀양은 '아에야'등 입타령 위주이고, 자진타령은 판소리 류의 서사적인 것도 섞여있다. 여기에서 앞산타령과 뒷산타령의 앞과 뒤라는 말은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른다는 의미이지 앞산과 뒷산을 노래한다는 뜻은 아니다. 장단은 2박자와 3박자가 가사에 따라서 원칙없이 섞여 있으나 2박자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소리판을 짧게 벌일 때는 자진산타령에서 끝나지만 소리판을 크게 벌일 경우에는 여기에 개구리타령, 도화타령, 방아타령을 곁들여 부르기도 한다.

• 휘모리잡가

빠른 템포로 몰아간다는 뜻의 잡가로써 서서 부르는 입창(立唱)에 속한다. 대개 시조와 같이 세부분으로 나누어지고(1.상황설명 2.주인공의 울음 3.답변) 12잡가와 같이 서울의 소리꾼들에게서 발생한 노래이다.

휘몰이 잡가는 긴잡가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사설이 많으며 내용이 해학적인 것이 특징으로 18세기 말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단은 산타령과 같이 2박자와 3박자가 함께 쓰이는 불규칙 박자이지만 2박자가 훨씬 우세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것은 전통음악 장단이 점차 균등형으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산타령과 휘모리 잡가가 생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곡목으로는 '만학천봉', '곰보타령', '병정타령', '육칠월',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생배잡이', '한잔부어라', '기생타령', '비단타령' 등이 전해진다.

• 잡잡가

12잡가, 산타령, 휘모리잡가 외에 전문 예능인들의 노래를 모두 잡잡가라고 부르는데, '풍등가', '금강산타령', '장기타령', '국문뒤풀이', '장대장타령' 등이 전해진다.

경기민요

경기민요는 서울 · 경기 · 충청도 일대지역의 민요를 말하며 음색이 맑고 깨끗하며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경기민요라 함은 통속민요를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태평가, 한강수타령, 풍년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기민요는 대개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지는데 경기민요 소리꾼들은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민요를 함께 부른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나눠 전라도 지역의 민요는 발성법과 시김새가 경기 · 서도 소리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며, 서도소리는 경기잡가를 비롯한 경기민요의 상당수가 서도적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민요에는 서도지역의 민요를 포괄하여 부른다. 이렇듯 경기민요는 레파토리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제주도 등의 각 지역의 통속민요를 다양하게 부름으로써 경기민요의 음악적 역량이 두드러진다.

의정부문화원 연혁

의정부문화원은 법률 제1716호(1965. 7.11)에 따라 시행된 지방문화 조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11695호(1989. 5. 10)로 시행공포 된 법률을 근거로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창달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 등 지역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한 인사들이 모여 1989년 5월 19일 34명의 발기인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원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초대원장에 이귀용, 부원장에 김창환, 박종희를 선출하여 발족하였다.

1989. 4. 6 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9. 5. 19 문화원 창립총회 개최(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작성, 임원선출)
1989. 7. 30 문화원 설립인가서 제출
1989. 10. 4 의정부시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시민회관 내 사무실 개설
1989. 12. 23 설립허가 제683호 사단법인 의정부문화원으로 문공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서 취득



▲ 1990. 3. 17 의정부문화원 개원(시민회관)

1990. 1.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정부문화원 법인등기 필
1990. 3. 17 의정부문화원 개원(시민회관)
초대원장 이귀용, 초대 사무국장 최상훈 임명

1991. . 10 향토문화교육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개설
초대 교육원장 김창환, 초대 연구소장 김양수

1992. 3. 12 2대 사무국장 조성우 임명
1993. 4. 1 3대 사무국장 정진선 임명
1993. 7. 23 의정부문화원 이전
(시민회관에서 의정부2동 526 석천빌딩 2층)
1993. 11. 2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


▲ 1993. 7. 23 의정부문화원 이전(시민회관에서 의정부2동 526 석천빌딩 2층)

- 2대원장 - 김승락 선임
- 부 원 장 - 김양수, 정대봉
- 이　사 - 이명림, 조정희, 황말무, 남정현, 허　환, 지철호
- 감　사 - 홍건호, 김태훈

1994. 2. 22　향토문화교육원장 임용균, 향토문화연구소장 안국승 선임

1994. 7. 20　법 개정에 의한 창립총회개최(사단법인이 해체되고 특별법인으로 격상) - 설립취지문 채택, 임원의 권리의무승계, 의정부문화원 정관 작성

1994. 8. 24　문화체육부로부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취득

- 94년 7월 8일 시행 공포 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특별법인으로 격상되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 설립을 문화체육부로부터 인가받으며 국고보조지정

1994. 11. 2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 지정

1995. 2. 28　의정부문화원 사무실 이전(의정부2동 427-23) 시 소유 구보건소 건물 무상임대

1995. 2. 28　임원증원 11명
김종혁, 김효열, 백순성, 송동은 안순한,
윤종균, 이민종, 정도회, 한광희, 황선덕

1995. 9. 15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 11. 21　임원 증원 9명(임시총회개최)
송영복, 원기영, 신광식, 김용일, 임홍재,
김지열, 천재욱, 라종묵, 이희정



▲ 1995. 2. 28 의정부문화원 사무실 이전기념 현판식(의정부2동 427-23)

1997. 7. 10　김종혁 문화학교장 선임

1997. 9. 10　인원 증원
김태훈, 차창규(이상 이사),
최영구, 김성대(이상 감사)

1997. 10. 25　제4대 김준국 사무국장 임명

1997. 12. 30　임시총회 개최

-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임원
김승락, 조정희, 허 환, 지철호, 백순성,



▲ 의정부의료원 뒤 의정부2동 427-23번지에 위치한 문화원 모습

정도회, 황선덕, 신광식, 김용일, 천재욱
-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임원
  조한영, 최영대, 정영수, 김성대, 최정언, 최영구, 노경희,
  차창규(이상 이사), 홍석범, 이 영(이상 감사)
- 임기만료에 따른 유임임원
  김양수, 정대봉, 황말무, 남정현, 이명림, 김태훈

1998. 1. 12 조한영 제3대 문화원장 선임, 부원장 김태훈, 윤종균
1998. 3. 6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 지정

1999. 7. 1 제5대 허인규 사무국장 임명

2000. 2. 10 임원증원
이수용, 최호동, 이응세, 윤석렬, 최영희, 박대규, 윤옥기,
이광수(이상 이사), 정윤구(감사)
2000. 11. 22 의정부문화원 청사건립추진 계획수립

2002. 1. 12 조한영 제4대 문화원장 선임
2002. 7. 1 임원 증원
홍석범, 김만복, 이장우, 김상기, 장운기, 윤상국(이상 이사),
황말무(감사)
2002. 8. 3 제6대 원용목 사무국장 임명

2003. 2. 21 집행부 일괄 총사퇴(집행부 구성을 사무국에 위임)
2003. 5. 7 신청사건립 이전(신곡동793)
2003. 6. 3 새 집행부 구성
정윤구, 박범서, 윤종균, 신상태, 정익현,
박노길, 전연수, 이종모, 송노원, 송영복,
정영수, 황희정, 최영희, 윤상국, 남정현,
이광수, 정병렬(이상 이사), 황말무(감사)
2003. 8. 22 김태훈 제5대 문화원장 선임



의정부문화원의 현재 시설현황

부지면적이 5,497.00㎡(1,662.84평), 연면적 1,197.97㎡(362.39평)인 의정부시 신곡동 793번지에 승용차 5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시설로 지하 1층에는 놀이마당 107.40㎡(32.49평), 기계실 18.00㎡(5.45평), 창고가 36.00㎡(10.89평)이다. 지상 1층에는 204.32㎡(61.81평) 의자 140석의 문예극장, 놀이방 22.41㎡(6.78평), 자료실 72.00㎡(21.78평), 원장실 21.30㎡(6.44평), 사무국이 49.50㎡(14.97평)이다. 2층에는 향토사랑방 73.695㎡(22.29평), 문화사랑방 73.695㎡(22.29평), 예술사랑방 72.9㎡(22.05평), 그리고 샘터사랑방이 72.9㎡(22.05평)이고, 부대시설로 휴게 공간과 야외공연장(특설)이 있다.

TEL.(031) 872-5678
853-0400
828-4736
FAX.(031) 853-0433


문예극장


놀이방


자료실



문화원 현관로비

문화학교 강사 간담회가 1월 21일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화학교 민요장구 · 한국무용 · 서양화 · 풍물 · 한국화 · 서예 · 댄스반 강사들이 모여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에 대한 내용이다.

2002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위하여 1월 28일에 정기 감사가 있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가 1월 28일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소재한 전국문화원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는데, 그 내용은 전국문화원 연합회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에 대한 건으로 조한영 원장이 참석했다.

시정40년사 편찬위원 위촉장 수여가 1월 29일에 있었다.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당시 조한영(문화원장), 허환(시의장), 류기남(도의원), 김경호(시의원), 강대욱(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김성종, 이영철, 김종국, 정찬영, 강치환, 구자홍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는 지난 2월 1일에 민요장구, 한국무용, 서양화, 가요반을 개강하였다.

원장단 회의가 지난 2월 20일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조한영 원장, 김태훈 · 윤종균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의 건'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확정 심의 건'으로 있었다.

제1차 정기이사회가 2월 21일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조한영(원장), 김태훈, 윤종균(이상 부원장), 한광희, 임홍재, 정영수, 이희정, 최영희, 남정현, 최정연, 홍석범, 원기영, 최영대(이상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2 회계년도 결산을 확정하고, 2003 회계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일괄 총사퇴를 결의하고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정40년사 편집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위촉자는 홍정덕(편집위원장), 김추윤, 신장섭(이상 부위원장), 유진삼, 권원기, 서일성, 조재덕, 안국승, 최영희, 고광근(이상 편집위원), 백운화(상임위원), 유재숙(상임간사)이다.

신임집행부 추천자 간담회가 6월 3일에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신임이사 1차 추천자 16명이 참석하여 상견례 및 문화원운영 및 총회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문화학교 제19기 입학식이 7월 2일에 문예극장에서 있었다. 이어서 거행된 〈2003년도 정기총회〉의 내용은 개회→성원보고→임시의장선출→개회선언→전차회의록접수→감사보고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 상정된 제1호의 안 '2002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확정의 건'이 원안통과 되었고, 제2호의 안 '2003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이 원안통과 되었다. 그리고 제3호의안으로 '임원선출의 건'은 전권을 집행부 의결에 위임하였다.

정기문화유적 탐방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문화원 임원과 문화가족이 함께 남해문화권(통영, 남해, 삼천포)으로 유적담방을 다녀왔다. 첫째날 통영(청마문학관, 향토역사관, 세병관, 충렬사, 해저터널, 한산도제승당), 둘째날 삼천포(창선연륙교, 해안물미도로, 금산보리암), 셋째날 남해(가천마을, 이충무공전몰유호비, 이락사, 남해대교)의 내용으로 일정을 마쳤다.〈자세한 내용 5페이지 참조〉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

7월 15일에 삼천리 회관에서 관내 문화예술 관계단체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경기도문화원 사무국장 회의

7월 23일 문화원 경기도지회(수원시)에서 있었다. 신임사무국장 상견례 및 제17회 민속예술축제 준비사항 점검 차 원용목 사무국장이 다녀왔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유적답사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의정부지역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경민대 관광과(송미순, 김은주, 지경화)의 안내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유적답사가 이뤄졌다. 의정부문화원에 집결하여 정문부장군묘→신숙주묘→노강서원→의정부예술의전당 코스로 진행됐다. 답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 총 1천80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한문교실

8월 11일 부터 16일까지 송산동에 있는 정문부장군 재실(송산재)에서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을 열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성호(중문학 박사) 선생을 강사로 초청하여 사자소학(부모편) 교육이 있었다.





8월 토요문화가 산책

주말마다 의정부문화원 야외특설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요문화가 산책이 열렸다. 8월 한 달동안 총 3천여 명이 관람하여 한 여름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첫째주

우리춤의 멋과 흥

8월 2일 의정부 시립무용단이 출연하여 태평성대,춘목,청산별곡,부채춤,장고춤,진주교방굿거리춤, 풍무악 놀이 등을 펼쳐 보였다.





둘째주

힙합과 초감각 비트 퍼포먼스 '두두락'

8월 9일 한국적 논버벌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두드락 프로덕션'의 초감각 비트 퍼포먼스

셋째주



세대유감 퓨전예술무대

8월 16일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하여 사물과 관현악 협연의 무대를 펼쳤다.



넷째주

쉘위 댄스, 라틴댄스, 힙합, 탭, 재즈댄스와 함께

8월 23일 칼리오페 댄스단과 코피아스포츠센타내 댄스스포츠팀이 출연했다.

다섯째주



남미의 이국적 음악향기

8월 30일 잉카후예 '시사이'가 들려주는 남미민속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문화원 관내유적지순례교육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유적지순례교육이 8월 19일에 있었다. 참석인원은 1백 55명으로 장암동(노강서원)→민락동(신숙주묘)→용현동(정문부장군묘)→호원동(회룡사)순이다.

제3차 정기이사회

8월 22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신임 문화원장 선출의 건'으로 제3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사 윤종균, 신상태, 정윤구, 정익현, 박노길, 전연수, 이종모, 송영복, 정영수, 최영희,윤상국, 남정현, 이광수, 정병렬(이상 무순) 감사 황말무가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원장 입후보자 2명의 소견발표를 듣고 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총 유효 투표수 15표 중 기호 2번 김태훈 후보가 9표를 획득하여 제5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제5대 문화원장으로 당선된 김태훈(金泰勳)원장은 1936년 11월 26일생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의정부여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의정부문화원 감사로 처음 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후 이사, 부원장을 다년간 역임하였으며, 현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계 박세당 선생 서거 3백주년 기념 현창대회



2003년 8월의 문화인물 선정기념사업으로 추모대제와 학술대회 및 고문서전시회가 있었다. 먼저, 지난 8월 21일에 장암동 서계선생 묘역에서 〈추모대제〉가 서계문중회원 및 기관장, 유임대표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서계선생 서거 3백주년 기념으로 초헌례→아헌례→종헌례 순으로 치러졌다. 〈유품 및 고문서 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박세당 초상화 및 홍패, 호구단자 등 총 27종 29점 전시되었다. 〈학술대회〉는 8월 29일에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는데, 발표자는 윤사순(고려대 명예교수), 박병련(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권오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김종수(청주교육대학강사), 홍정덕(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이고, 토론자는 정순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곽진(상지대학교 교수),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편사 연구관), 신병주(서울대규장각학예 연구사)이고, 사회자는 김학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정만조(국민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수고하였다.〈자세한 내용 15페이지 참조〉



첫째주 한가위맞이 서도창극 '항두계놀이'

9월 6일 한국서도연희극보존회가 출연하여 평안도 두레계의 일종인 '항두'노동요를 서도창극으로 극화시켜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을 선사했다.

9월 토요문화가 산책

주말마다 의정부문화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9월 토요문화가 산책에는 총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둘째주 '사랑노래나 불러보자'

9월 13일 한국적인 포크록을 만들어 가는 철가방프로젝트와 소설가 이외수, 한국 록 베이시스의 명인 이남이가 계획한 포크록 프로젝트. 소박한 우리 삶의 정서를 풀어보는 서정적인 포크록 무대.



셋째주 클래식과 팝뮤직콘서트

9월 20일 의정부 젊은 음악인들로 결성된 의정부 유스챔버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세미클래식 소품과 추억과 낭만의 올드팝송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듣는 크로스오버 뮤직 페스티발.

임시이사회

9월 8일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김태훈(원장), 윤종균, 최영희, 신상태, 정영수, 정윤구, 이종모 윤상국(이상 이사), 황말무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문화원 임원(부원장 2명, 감사 1인)에 대한 선출을 다음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임원회비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제18회 회룡문화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시 승격 40주년 기념 2003년 시민문화 대축제'인 회룡문화제가 열렸다. 의정부시청 앞 상설야외무대와 준비된 전시장에서 의정부문화원 최대의 정기행사답게 성대하게 거행되었다.〈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 참조〉



문화사업을 위한 후원금 명단



의정부 문화원은 2003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염원이던 새 청사가 완성되었고, 신임 문화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경에는 제18회 회룡문화제 행사가 개최 되어서,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물론 문화원은 시·도 및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이사, 그리고 일반회원의 회비로 일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이 기금만으로는 행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받아 행사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민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래에 의정부문화원 문화사업을 위해 그동안 후원금을 성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 신도건설(주) ····· 1,000만원
- 교보생명 ····· 500만원
-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 ····· 200만원
- 소강한약방 신조현 ····· 20만원
- 제일시장 내 금장 ····· 10만원

※ 문화원 신청사건립후원금 명단은 별도 공개합니다.

회룡문화

2003 통권 제16호

의정부문화원 임·직원 명단

원 장 김태훈

이 사 남정현 / 윤종균
신상태 / 정영수
박노길 / 최영희
윤상국 / 정익현
정윤구 / 이종모
송노원 / 박범서
황희정 / 이광수
전연수 / 정병렬

감 사 황말무

사무국장 원용목

총무과장 최진수

회계주임 오복자

향토문화연구소

소 장 홍정덕

연구위원 안국승 / 김추윤
심안기 / 유진삼
서일성 / 신장섭
권원기 / 최영희
김종만

회룡문화배부처

■ **직접배포**
의정부문화원/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관내 동사무소 민원실/청소년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 **우편발송**
문화관광부/전국문화원연합회/전국문화원
의정부문화원회원/정기구독자
의정부지역관내 초·중·고·대학교

원고모집

회룡문화는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의정부문화원 '회룡문화'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 수필, 기행문 등
- 의정부와 관련된 역사, 전설, 미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이야기

발행인 김태훈

발행처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93
전화 : (031) 872-5678, 853-0400
828-4736
팩스 : (031) 853-0433
e-mail : ujbcc@naver.com

기획·인쇄 디자인 동심원
전화 : (031) 845-3795
e-mail : hannooll@hanmail.net

※「회룡문화」는 국·지방비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문화학교 강좌안내 및 교육생모집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교육기관으로 의정부시 용현동(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연건평 363평의 최신식 건물을 신축하고 명실상부한 시민문화의 요람입니다. 이에 문화원은 전 시민 모두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몸에 익히게 하고자 노력하는 전통문화의 샘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이와 함께 문화에 대한 자기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적 문화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통문화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년도 문화학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 2월 ~ 12월
교육과목 : 가요교실,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민요장구, 요가, 닥종이인형 문인화, 서양화, 문화유산 해설사 등
교육과정 : 5개월, 10개월(주2회)
접수기간 : 2003년 12월 20일 ~ 2004년 1월 20일
대　　상 : 문화가족(의정부시민), 일반인, 청소년
등록사항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수료생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 수료증을 수여하며, 문화원내 동아리로 육성지원하여 지역축제인 회룡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납입하신 회비는 의정부문화원 운영 발전에 쓰여집니다)

문의 및 안내 : ☎ 872-5678 / Fax. 853-0433
http://www.iloveculture.or.kr
E-mail : ujbcc@naver.com





의정부문화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793
☎(031)872-5678, 853-0400
828-4736
Fax.(031) 853-0433
http://www.iloveculture.or.kr
E-mail : ujbcc@naver.com